

우리문화



지령 170호 기념 특집 **열려라! 文化국회**

어떻게 지내십니까? | 아파트 팔아 박물관 지었습니다

여름사냥 | 지역문화 즐기며 떠나는 파서여행 3선

2004 _ 5.6

VOL. 170

전국문화원연합회



민초들의 삶이 던지는 메시지 '검정 고무신'

올 초 국내 연극계의 핫 이슈이자 안타까움을 낳았던 조재현 주연의 '에쿠우스'. 그 뒤를 이어 극단 실험극장의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 '검정고무신'. 지난 2002년 초연 당시 한국연극협회 선정 Best 7에 선정되는 등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해방 전후의 격변기에 고무신 공장을 배경으로 민초들의 역동적인 삶을 무대화한 작품인 '검정고무신'을 통해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결코 다르지 않은 우리네 서민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대학로에 위치한 알과 핵 소극장에서 6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02.745.2124)



가족연극 '또채비 놀음놀이' 보러와요

서울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6월 18일부터 7월 18일까지 열린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연극을 표방하고 있다. 낚시그릇, 음료수캔, 병뚜껑, 스프레이 통, 신문지, 한지 등 버려진 것들을 재활용해 아름다운 소품으로 재창조해낸 자연 친화적인 연극.

경상북도 민담에 나오는 도깨비의 또 다른 명칭인 '또채비'들의 재미있고 유쾌한 에피소드를 상상력을 동원해 다양한 얘기들로 풀어내고 있다.(02.525.6929)



세계의 도시와 환경 사진전 '80일간의 세계일주 그리고 서울의 기억'

내셔널 지오그래픽, 코비스, 매그넘 등의 대표적 작품과 50년대 서울의 풍경을 항공 촬영한 사진을 전시한다. 세계의 도시와 환경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속에 담았다. 5월 1일 부터 7월 15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야외공간에서 무료로 전시된다.

11월까지 '일요 열린 국악무대'

국립국악원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 야외무대 별빛이더에서 '일요 열린 국악무대'를 갖고 있다. 7월은 젊은 연주자들이 꾸미는 '창작실내악의 밤'이 8월은 전통과 창작 타악의 무대 '한 여름밤의 타악이야기'가 펼쳐진다. (02.580.3300)

500년 고려역사와의 만남 강진 청자문화제

'강진청자문화제'가 올해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1주일간 강진군 고�령청자도요지 일원에서 '흙, 불 그리고 인간'이라는 주제아래 펼쳐진다.

축제 기간동안 청자빛기 체험장과 청자 여름캠ป์ 등을 운영, 관광객이 직접 도자기를 만드는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비색상감청자의 대표적 명품 가운데 80%이상이 강진산으로 인정받고 있을만큼 그 전통을 자랑하는 남도의 청자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 (061.430.3228)



여름철 주요 지역 축제

금강민속축제

민속과 문화의 고장으로 알려진 금산은 그 풍광 또한 수려하기로 유명하다. 이곳에서 열리는 '금강민속축제'는 이곳의 민속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축제. 올해에는 7월말경 개최될 예정이다. (041.754.2724)



보령머드축제

올해로 7회째를 맞으며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1주일간 대천해수욕장 및 보령시내일원에서 펼쳐진다. 머드왕 선발대회, 머드 세계 불꽃 경연대회, 갯벌체험마라톤, 대형 머드탕 등 색다른 볼거리와 다양한 체험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041.930.3541)

정선아우라지뿔목축제

정선아리랑의 대표적인 발상지이자 조선시대 목재를 서울로 운반하던 유명한 뿔목터인 아우라지에서 펼쳐지는 축제이다. 뿔목제작, 감자 많이 굽기, 아리랑 따라 부르기 등 여러 가지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8월초에 열릴 예정이다. (033.560.2661)

거창국제연극제

경남지역 연극단체들간의 화합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8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6회를 맞는다. 7월 3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월 17일까지 연극 및 각종 공연은 물론 국내외 학술세미나, 초청강연, 문화체험행사 등이 펼쳐진다. (055.943.4152)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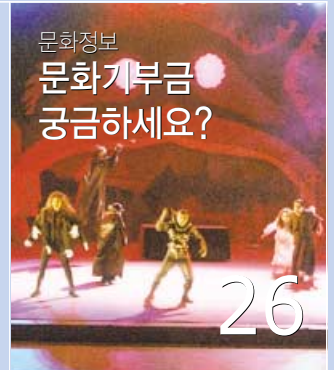
May · June 2004 _ Vol 170

지령 170호 기념 특집
열려라! 文化국회



05

문화정보
**문화기부금
궁금하세요?**



26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파트 팔아
박물관 지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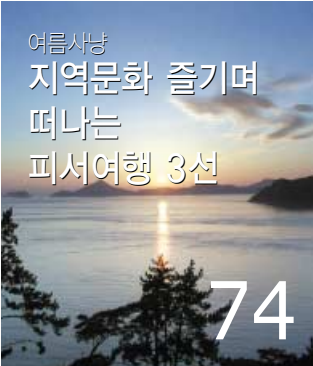
40

향토지킴이를 찾아서
**당진에서
시베리아까지**



48

여름사냥
**지역문화 즐기며
떠나는
피서여행 3선**



74

- | | | |
|----|------------------|----------------------|
| 16 | 씨줄날줄 | 달동네 |
| 18 | 문화정책 | 프랑스 문화의 집, 우리의... |
| 22 | 현장르보 | 문화가 '천석꾼' '만석꾼' 되려면? |
| 30 | 현장리포트 | '인천 메세나를 어떻게 키우나' |
| 32 | 아시나요? | 패스트푸드와 슬로푸드 등 |
| 33 | 시 | 아버지 생각 |
| 34 | 사람들 | 향토사학자 젊어진다 |
| 44 | 전통문화를 찾아서 | 소비자 만족시켜야, 진짜 장인...? |
| 52 | 사랑방 | 우리 도개비 맞아? |
| 56 | 뒷마루 | 왕자 들어간 우리동네... |
| 60 | 회의도 경쟁력이다 | 표결 방법 |
| 62 | 문화뉴스 | 16개 지방문화원 집중 지원 예정 |
| 70 | 문화원 기네스북 | 어린이 한명이 29개 강좌 수강 |
| 78 | 문화여행 | 가볼만한 문화재 옆 박물관 |
| 82 | 발길따라 | 또 오세요! 서산 해미읍성 |
| 86 | 책꽂이 | 경기누정문화 등 |

5월 19·20일 서귀포서 전국문화원장 연찬모임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KAL호텔 회의실에서 전국문화원장 연찬모임을 가졌다.

정부의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대한 대체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진 이번 연찬회에서 권용태 회장은 문화원장들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문화원의 역동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또 문광부장관을 대리해서 참석한 광영진 예술국장은 정부의 지역문화 정책 전반에 걸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문화원이 구심체로서의 사명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노나메가 발행인 백기완 선생의 '우리문화 사랑'과 이성무 전 국사편찬위원장의 '조선 후기 역사문화의 재조명'이라는 주제의 특강에 이어 지방문화원 운영 전반에 걸친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관련기사 62면>

문화동력연구소 첫 모임

초대소장에 유재용 전 송파문화원장 전국문화원연합회 부설 문화동력연구소 첫 모임이 지난 5월 7일 세종문화회관 심포니아홀에서 권용태 회장과 9명의 연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구두호천에 의해 유재용 전 송파문화원장이 전원일치로 초대 소장에

선출되었으며 전문 9조와 부칙 1조로 되어 있는 문화동력연구소 운영규정을 심의 확정함으로써 연구소 운영의 토대를 마련했다.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진흥의 구심체로...

앞으로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5월 25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1년여 동안 진행된 지역분권 TF(Task Force)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한 중단기 대책을 보고했다.

수도권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지역문화가 고속철도의 개통과 FTA 체결 등의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통령의 지시 사항으로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지역문화 인력전문화와 프로그램 개발 등의 실질적인 내용과 함께 지역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주민생활 중심으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방안이 들어있다. <관련기사 62면>

1899년 국내최초 전차 개통식 사진 근현대사 사료수집가 김영준씨가 입수 국내 최초의 전차 개통식을 찍은 사진이 발견됐다. 1899년 5월 4일 오후 3시 개통식을 구경하려고 구름 같은 관중이 동

대문 성벽까지 올라가 있다. 동대문 앞의 지붕 건물은 전차 차고. 당시 미국에서 발행되던 주간지 '콜리어스 위클리(Collier's Weekly)'에 화보 형식으로 실린 것을 근현대사 사료 수집가인 김영준(54)씨가 최근 캐나다에서 입수했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부안서 전투선 진수

KBS 1TV의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연출 이성주)' 제작진은 지난달 전북 부안군 변산면 공항 앞바다에서 전라 좌수영 신축건물 상량식과 전투선 진수식을 거행했다. KBS 관계자 등은 이날 성웅 이순신의 업적과 뜻을 기리고 성공적인 드라마 제작을 기원하는 제사와 진수선 앞의 테이프 커팅 행사를 가졌으며 관광객들은 폭약이터지고 화살이 오가는 특수 전투 촬영 장면을 관람했다.

제작진은 지난 5월 초부터 변산면 공항과 진서면 내소사 입구 전나무 숲, 고사포 해수욕장 부근의 성천과 적벽강, 위도면 논금 해수욕장과 부안 영산테마파크 주변 등 8개 보조 촬영장 등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진수식을 가진 전투선은 실물크기로 5개월여의 제작기간을 거쳤으며 드라마 종영후 현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KBS 창사 77주년 기념 100부작인 '불멸의 이순신'의 첫 방영은 오는 8월 14일부터다.



전국문화원장 연찬모임



문화동력연구소 첫 모임



지령 170호 기념 특집

열려라! 文化국회



- 08 >> 문화관광위원으로 활동했던 정병국
- 09 >> 문화원장 출신 '문화시장' 심재덕
- 10 >> 춤추며 문화 일구는 춤꾼 강혜숙
- 11 >> 30년 방송아나운서 인생 이계진
- 12 >> 국토를 사랑하는 향토전문가 강길부
- 13 >> 기적의 도서관으로 유명해진 김재윤
- 14 >> 시인을 꿈꾼 출판사 사장 이상호

기획 _ 강민철 우리문화 기획팀장
취재 _ 지호진 우리문화 기자

‘문화의 새 장’ 여는 議政 펼치겠다

제17대 국회에 진출한 문화계 인사들에게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국회가 ‘주먹다짐’으로 대변될 만큼 정쟁으로 얼룩진데 따른 문화계의 반사적인 소망과 기대인지 모른다. 다시말해 지금까지 국회는 ‘정치’가 전부였다. 문화는 경제현안에도 밀리고 사회문제에도 뒤처졌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문화계 출신 인물들을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또 정치적으로 그동안 번번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거나 들러리 노릇만 한 탓에 아직 그 기반이 취약한 문화계 현실이 제17대 국회를 통해 달라질 것인지 문화계는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와는 동떨어진 것 처럼 보이는 국회도 안을 들여다 보면 일종의 문화공간이다. 시원스레 물을 뿜는 분수대를 비롯 조각공원·야외결혼식장 등 문화적 요소들이 많다. 국회에서 행해지는 문화행사도 적잖다.



제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인기 높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인기 ‘상종가’이다.

한나라당이 최근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로부터 상임위원회 배정신청을 받은 결과, 문화관광위원회가 건설교통위에 이어 인기 2위에 올랐다.

한 원내관계자는 26일 “초선들을 중심으로 문광위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 교통정리에 애를 먹고 있다.”며 “문화관광위원회는 줄곧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16대국회 개원 때 방송위원회 설치 등으로 위상이 강

한예로 지난해 11월 18일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국민의 詩 낭송의 밤’은 국회의원들과 원로시인들이 어우러진 시낭송의 밤으로 일반 시민으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었다. 서로 흠잡고 깎아내리기에 바빴던 ‘정치’와 서로 보듬어 안고 추스려 주는 ‘시’라는 이질적 요인이 국회의사당에서 충돌하듯 만나 큰 하모니를 이룬 것이다.

특히 이번에 개원된 제17대 국회는 문화계에 조예가 깊은 인사들이 상당수 있어 국회의 문화를 송두리째 바꾸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국회내부의 분위기가 달라짐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문화의 세기’란 시대적 화두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문화>는 17대 국회에 진출한 ‘문화와 깊은 관련

국회 상임위 중 ‘찬밥위원회’에서 ‘인기위원회’로

더이상 문화관광위원회는 ‘찬밥’이 아니다. 제17대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문화관광위원회의 인기가 눈에 띄게 올라간 것. 아래의 기사 내용처럼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문화관광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더 이상 찬밥이 아니며 오히려 의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위원회로 떠올랐다.

물론 언론인 출신 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을 하며 언론개혁 입법에 참여하고자 한 배경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의원 개개인들의 문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과 비전, 정치 경제 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화 분야의

화돼 주목을 받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도 지난 20일 상임위 배정신청을 마감한 결과 1순위로 문화관광위원회를 신청한 당선자가 18명으로, 약 2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민주당의 경우 9명의 당선자중 3명이 문화관광위원회를 선택했다.

문화관광위원회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17대 국회에서 첨

예한 이슈인 언론 개혁 관련법을 이 위원회가 다룰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신문과 방송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자기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5월 26일자 한국경제신문)

이 있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그들이 품고 있는 문화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앞으로 펼쳐나갈 여러 문화정책들을 들으며 17대 국회를 통해 변화될 우리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가늠해 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높아진 위상, 미래의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라는 전망, 여러 산업 분야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모체산업’으로서의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우러진 결과라면 너무 과장된 기대일까?

우리문화와 관련해 당선자들에게 던진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문화와의 인연’ 또는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나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문제점과 우리나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펼치고 싶은 문화정책이 있다면?
- 다 당선 지역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청사진은?
- 라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경기 가평·양평 한나라당

| 나이 : 46세

| 학력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정치학박사)

| 경력 : 통일민주당 총재 비서관, 민주자유당 총재 비서관,
대통령 부속실장, 제16대 국회의원(경기 가평, 양평), 국회사무총장, 문화관광위원회

| 취미 : 인라인 스케이팅, 등산, 그림 보기

| 이메일 : jung@byounggug.co.kr



문화관광위원으로 활동했던, 정병국

[SPECIAL ISSUE]

가. 시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유학 와서 중학교 1학년 때, 당시 명동 국립극장에서 ‘무녀도’라는 연극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생전 처음 본 연극에 대한 문화적 충격은 저에게는 매우 컸습니다. 또한 국립극장이라는 실질적인 문화공간에도 처음 가봄으로써 열등감마저 생겼습니다. 사실 그러한 열등감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마음으로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 문화와 문화산업은 엄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접근 방법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문화예술은 먼저 순수 문화예술 그 자체가 우선 시 되어야 합니다. 산업은 사실 부차적이고 응용적인 것일 뿐입니다. 문화관광부의 지금까지 문화정책을 보면 문화산업이 주가 되고 순수문화 예술 진흥은 부차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순수문화예술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산업은 순수문화예술의 문화적 가치가 가미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문화예술 창달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 저의 지역구인 가평과 양평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용이해 자연발생적으로 많은 예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인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이 훌륭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특히 자연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국제 락페스티벌이나 음악회 등을 유치하여 수도권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 행사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현재 남한강과 북한강 주변에 약 500명의 미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과 함께 우리 지역을 미술특구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러브호텔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러브호텔 문화도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현재 1개의 러브호텔을 ‘살아있는 미술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세계사물놀이 대회’가 양평에서 3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행사를 보다 확대시켜 ‘세계민속축제’로 만들고자 합니다.





수원시 장안구 열린우리당
 | 나이 : 65세
 | 학력 : 서울대학교 잠사학과
 | 경력 : 수원문화원장, 화성행궁복원추진위 자문위원장,
 수원시장, 화관문화훈장수상, 사)한국화장실협회 회장
 | 취미 : 테니스
 | 이메일 : woorisim@woorisim.net

문화원장 출신 ‘문화시장’, 심재덕

가. 수원문화원장을 역임하면서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특히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 자문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서지학자 이종학 선생님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잘못 알려진 문화재의 위치, 문화관련 내용 등 역사를 바로잡으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수원시장 재임시절에도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위해 화성행궁 복원,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시민문화행사 지원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나. 반만년의 역사 속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재가 있지만 일제 식민시대를 거치며 상대적으로 일본문화와 비교해서 비하되었던 탓인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문화재를 볼 수 있기 때문인지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소중함에 대한 재인식 교육부터 필요하고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 상품 등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현대 사회가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안정된 사회로 발전되기 위해서도 효(孝)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화성의 ‘성역화사업(聖域化事業)’을 계획대로 완성하기 위해선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라. ‘지구촌’이라는 이름으로 각국에서 세계화 및 개방

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결합된 상품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을 방문하든 외국인이 방한을 하든 서로 자국의 문화와 또는 자국의 상품과 다른 것을 먼저 찾아 비교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세상을 넓게 보고 해외에서도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것을 바탕으로 한 ‘온고지신(溫故知新 : 옛 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새 것을 안다)하는 마음’으로 접근할 때 가장 강력한 국가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비례대표|열린우리당

| 나이 : 56세

|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 경력 : 청주대학교 무용학과 교수(현),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문화예술특위 위원장, 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현), 한국민예총 민족춤위원회 위원장, (사)충북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취미 : 창조적 상상하기

| 이메일 : kangchum@hanmail.net



[SPECIAL ISSUE]

춤추며 문화 일구는 춤꾼, 강혜숙

가. 저는 춤을 추고 춤을 가르치는 무용가입니다. 춤은 행위예술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통해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춤을 보고 무용가가 되고 싶은 꿈을 키워왔고, 무용을 통해 저의 사상과 저만이 가지고 있는 창작춤의 세계를 펼쳐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통의 의식과 사상이 담겨 있는 민족춤을 이어나가고 보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개발해 문화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나. 밥보다 문화가 생활양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공공도서관(462관), 박물관 및 미술관(276관), 문예회관(113관), 문화의 집(123곳), 문화원(220곳)등 각종 문화기반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열악한 실정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문화예술의 운영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간 정보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가 대도시 중심으로 편향되다 보니까 중소도시나 농어촌 주민들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다. 저는 비례대표의원이라서 어느 지역만을 발전시키겠다는 것보다는 소외된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덧붙여 민족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라. 문화예술은 관 주도이기보다는 문화예술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공동참여 속에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부 문화 정책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세계적으로 문화산업은 21세기의 가장 각광받는 산업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문화산업이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산업을 따라 잡을 정도이며, 우리나라도 연간 20% 이상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만이 가진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콘텐츠화해서 세계 속에서 한국의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원주|한나라당

| 나이 : 58세

| 학력 : 고려대학교 국문과

| 경력 : 원주 대성고등학교 교사(국어), KBS 아나운서(공채1기),
SBS 아나운서 부국장 대우, 프리랜서 아나운서, 강원도민회 이사

| 취미 : 독서 및 미술감상

| 이메일 : leekejinlove@daum.net

30년 방송아나운서 인생, 이계진

가. 국문학을 전공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책들을 많이 읽다보니 책들을 통해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안목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30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도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나. 문화예술 분야인 음악과 미술 뿐 아니라 전통문화에서도 문화를 순수하게 좋아하고 즐기는 것으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돈의 가치를 생각해서 접근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의 가치, 문화에 대한 평균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문화에 대한 가치를 낮게 보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문화에 대해 외국에서 좀 좋은 평을 하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 스스로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나라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혜택을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 저질문화가 생겨나게 되니까요.

다. 원주는 불교문화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전통 보존이 잘 안돼 있기도 합니다. 원주 나아가 우리나라의 소중한 보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문화를 앞세운 문화마인드로 산업에 접근하여 원주 지역의 문화는 물론 문화를 통한 산업발전에 구체적인 모델을 세우고 그를 실천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라. 21세기를 대표하는 중요한 마인드가 바로 문화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문화를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문화로 식민지를 지배하면 그 영향이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 문화의 중요성은 더욱 큼니다. 문화를 앞세운 세계진출이 아니라면 즉 문화가 빠진 산업과 경제는 아무리 산업과 경제가 발달한다해도 세계를 이끄는 중심국가가 아니라 단순히 산업국 또는 경제침탈국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울산 울주열린우리당
 | 나 이 : 만 62세(1942년 6월 5일생)
 | 학 력 : 경원대학교 대학원 졸업(도시공학 박사)
 | 경 력 : 건설부 국장 (도시국, 주택국), 대통령 건설교통 비서관,
 한국 감정원장, 건설교통부 차관, 경기대 교수
 | 취 미 : 등산
 | 이 메 일 : gilbu0415@naver.com



국토를 사랑하는 향토전문가, 강길부

[SPECIAL ISSUE]

가. 개인적으로 향토지를 네 권이나 쓰면서 문화와 남다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일하다보니 땅과의 인연이 깊을 수밖에 없었지요. ‘땅이름 국토사랑’, ‘땅이름 울산사랑’ 등의 향토지를 통하여 우리 고유문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되었으며 지명에서 우리 선조의 깊은 통찰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 문화 산업이 오늘날 세계적 관심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산업 영역이 담고 있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문화 산업은 여전히 ‘문제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문화 산업 후발국이 수행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문화 산업에서 여러 가지 노출된 문제들과 잠재적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보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문화 산업의 현실에 함몰되는 것과 문제의 점검 및 인식위에서 그 현실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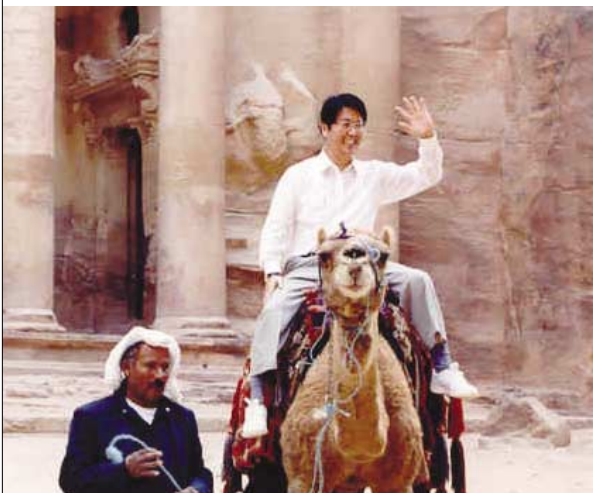
지금 우리는 어느 쪽이나 하면 문제의식의 확보보다는 문화 산업의 잠재력, 수익성, 광대한 시장 등 산업적 경제적 이해관계에만 눈을 돌릴 뿐 이 산업 영역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맹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천혜의 관광자원과 선사시대의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기반 구축 확대하고, 문화재의 적극적인 보존 관리와 지역문화 예술 계승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행사 프로그램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개통에 맞추어 우리 울주군의 문화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고속철도 울산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 문화유산의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라. 최근 서구 사회에서 그들이 주도한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양의 문화와 전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사적 추세에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에서 문화선진국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듯 합니다. 유교적 전통과 불교문화는 서구 사회에서 물질문명이 만들어낸 병폐를 치유하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상업적 목적으로 동아시아에서 ‘한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텔레비전 드라마, 가요 등을 중심으로 다른 후발 공업국에 유행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깊은 고민과 성찰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동아시아를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 진정으로 문화강국으로서 자리 매김을 해야 합니다.





제주 서귀포 남제주군|열린우리당

| 나이 : 40세

| 학력 : 명지대 대학원(문학박사)

| 경력 : 탐라대학교 출판미디어학과 교수, 문화관광부 청소년 책임기 홍보대사,
민족평화축전 조직위원회 대변인, 진중도서관건립 국민운동 집행위원장,
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

| 이메일 : jayyun415@naver.com

기적의 도서관으로 유명해진, 김재윤

가. 어릴 때부터 책벌레였습니다. 지금은 책전도사라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대학 이후에는 출판 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출판이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산업의 한 분야라는 차원을 넘어 사회문화발전의 근간이라고 여기게 되자 1990년부터 (재) 한국출판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본격적인 출판(학) 연구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 문화산업의 핵심은 콘텐츠입니다. 산업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는 우리 고유의 것을 세계적인 감각에 맞추어 다듬어내는 과정과 테크닉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문화와 고유전통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전문적 훈련과 그에 따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도서관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그림책이 그러하듯 한국적인 모티브와 표현력이 보편적인 호소력을 얻을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고유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온 세계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을 적극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주도 서귀포·남제주지역의 현안과제는 경제와 교육을 살리는 일입니다. 문화와 연계시킴으로써 그 두 가지 과제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도서관 활성화를 통해서 참 실력을 키워내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 지역에는 하드웨어로서의 도서관은 많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운영이 문제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 산재해있는 유형무형의 문화재들과 각종 축제들을 주민생활과 밀착되게 연계시키는 작업을 통해

서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면서 그것이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어야 관광객들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 문화의 다양성과 충실성은 그 사회를 평가하는 주요한 잣대입니다. 거기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시 소설 음악 미술 등 순수창작예술이 문화산업의 주요한 인프라입니다.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예술, 지역문화 전승·보전·창조를 통한 우리 문화의 세계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갑|열린우리당

| 나이 : 43세

| 학력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경력 :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및 부대변인,
2003년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현) 이한열추모사업회 사무국장

| 취미 : 영화감상

| 이메일 : wsh386@hanmail.net



시인을 꿈꾼 출판사 사장, 우상호

가. 흔히 운동권 출신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만, 저는 대학 다닐 때 시인이 되려고도 생각했고(5월 문학상, 윤동주 문학상 등 수상),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졸업 이후 출판사, 프로덕션((주)비디오그래픽스 전무이사)도 해봤고, 방송법 개정도 같이 해봤습니다. 또한, 94년에는 정보의 민주화와 건강한 청년문화를 위해 청년정보문화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에 가셔도 문화관광위에 지원하여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만드는 정책분야에 집중적 관심을 투여할 생각입니다.

나.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크게는 문화산업에 대한 국가·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더불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접근과 저소득층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문화활동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열린우리당의 문화산업 정책으로 제시된 여러 안을 기반으로, 관련 단체와 전문 위원회 등을 통해

서 가장 시급하고 적절한 노력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에서 문화산업의 정책수립과 집행 및 지원체계를 법적·제도적으로 강화하여 더 많은 중산층과 서민, 소외계층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남북의 건강하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보존과 남북화합의 문화적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예진흥기금을 대체할 공익재단,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 등 문화예술 관련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는 문제는 서대문 특히 신촌 지역의 특수성입니다. 서대문 갑지역 안에만 대학이 5개가 있고 서강대와 홍익대를 포함시키면 10만 명이 넘는 학생교직원이 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 이처럼 젊고 역동적이며 질 높은 인구가 밀집된 곳은 전국에서 아니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를 단순히 소비문화의 대상으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7개의 대학을 원형으로 연결하고 그 중앙에 고급 문화지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이 지역은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지역민원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문제라고 제기할 것입니다.

라. 우리나라 지역문화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민족문화의 국제적인 교류를 위하여 애쓰시는 전국문화원연합회와 전국의 문화원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부족하고 정제되어 있진 않지만, 항상 열려있는 자세로 문화관련 단체와 인사들의 제안과 비판을 수용하고 연구하여,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계 출신 국회의원에 거는 기대

문화계 출신 17대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회의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온 인물들과 방송인이나 신문기자 즉, 언론인 출신으로 문화산업 또는 문화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 문화와 예술 활동을 해온 주목받는 문화계 인물, 전문분야는 문화관광분야가 아니더라도 문화적인 소양과 능력으로 주목을 받은 인물 등으로 크게 그 출신의 배경을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역 문화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인물들도 있으며 출신 지역의 특성으로 전통과 문화에 남다른 비전과 정책을 펼쳐온 인물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출신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나라의 문화산업 발전과 전통문화의 계승, 지역문화 발전의 기초를 세우고 새로운 지역문화발전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문화계 출신 의원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며 비전이기도 하다. 이 의지와 비전을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지의 인물 개인마다 접근방법과 추진방향, 실천방안이 다를 수 있겠지만 말이다.

현재 당면한 어려운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지역 사이에, 계층 사이에, 산업 사이에 영겨 있는 여러 문제들을 풀어가야 할 국회에 '문화'라는 것은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분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문화는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산업의 발전과 북한 문제를 푸는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열쇠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달동네

소주와 라면만 팔리는 산동네
달 하나 떠 있습니다.

서울의 달동네를 문화상품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을 수만 있다면
똥겉레로라도 문질러 지우고 싶은 기억들인데...

부자들은 가난합니다.
정작 가난한 이들은 나눠줄 게 없는 부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한 달 생활비가 넘는 티켓으로
가슴 몽클한 클래식을 들을 수 있을진 모르지만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할 때 오는 감동을 살 순 없습니다.

문화와 미개가 다른 것은 나눔과 독점의 차이겠죠.
호주머니를 털어서 산 초코파이와 바나나우유를
앞에 놓고 어려운 이웃과 박수치며 부르는 노래가
모차르트의 음악보다 더 마음을 울립니다.

아이들과 손잡고 추는 춤이 발레보다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입니다.

글 _ 강민철 기획팀장
사진 _ 김석화 사진기자



우리의 프랑스 다르다

‘문화의집’ ‘문화의집’

센스 나시오날 | 공연·전시 위주로 하는 중소규모 ‘문화회관’
한국 문화의집 | 컴퓨터 등 생활강좌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프랑스 문화 분권 정책의 핵심 '문화의 집'

문화복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정부(문화부)는 지난 1996년 서울 서대문구청 등 4곳에 '문화의 집'을 건립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전국 142곳에 세워진 '문화의 집'은 지역 주민에게 문화·생활교육의 공간을 마련해 문화분권에 일조하면서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 '한국 문화의 집 협회'를 중심으로 '문화의 집'끼리 정보를 교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고 있다.

그런데 '문화의 집'은 그 명칭 때문에 종종 프랑스 '문화의 집(La Maison de la Culture)'과 혼동을 일으킨다. 이 글은 프랑스가 43년 전부터 독특하게 실시해온 문화분권의 공간 '문화의 집'에 대한 간략한 소개서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의 집'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지역 내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거울삼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프랑스 '문화의 집'에 담긴 의의를 제대로 축약하기가 쉽지 않다. 3단계로 이름과 기능이 변화해온 프랑스 '문화의 집'에는 문화분권정책의 역사가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큰 의미를 지닌다.

프랑스 문화의 집 '센느 나시오날 Scenes Nationales'은 굳이 번역하자면 '국립 무대'쯤 된다.

61년 프랑스 하브르에 최초 개관

91년 프랑스 문화부는 '문화의 집'을 비롯해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지역문화센터들을 '센느 나시

오날'이란 이름으로 통합했다. 그 이후로도 문화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문화공간이면 이 명칭을 부여했다.

1959년 세계 최초이자 프랑스 최초의 문화부 장관이 된 소설가 앙드레 말로의 야심만만한 발상으로 61년부터 세워지기 시작한 '문화의 집'에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중앙 즉, 파리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미 40년대부터 연극을 중심으로 시작한 '문화 민주주의화(La Democratisation Culturelle)' 정신에 충실했던 앙드레 말로는 신설된 문화부의 임무를 "가능한 가장 많은 프랑스인들에게 프랑스를 비롯 인류의 주요한 작품들을 만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 뒤 그 역사적 임무를 띤 공간으로 '문화의 집' 건립에 나선다. 61년 프랑스 서북부 하브르(Havre)시에 최초의 '문화의 집'을 개관한 뒤 1962년에 말로는 최소 20개의 문화의 집의 창설을 구상했다.

그러나 "고속도로 60km를 까는 돈으로 전국 웬만한 도시에 '문화의 집'을 짓겠다"는 말로의 이상은 68년 5월 혁명과 그로 인한 프랑스 정세의 변화로 좌절하고 만다. '문화의 집'을 '꿈꾸는 기계'에 비유하며 고급 문화를 공급해서 대중들의 상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말로의 문화관이 68혁명 이후 일기 시작한 문화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고 확대되면서 더 이상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다. 여기에다 68혁명 뒤인 5월 25일 전국 '문화의 집' 관장들이 모여 '문화 민주주의화'의 이상을 폐기 처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빌뤼르반(Villeurbanne) 선언' 등 프랑스 문화인들의 강한 반발 등도 큰 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단순히 공연 전시를 공급하는 '문화의 집'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70년부터 자크 뒤아멜 문화부장은 '문화의 집' 대신에 규모가 작은 '문화활동센터(

Centre d' Action Culturelle)' 를 건립하기 시작한다. 가장 큰 변화는 센터 규모가 작아졌고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도 대폭 낮추었다는 것이다. 지역문화센터의 3세대는 1983년부터는 짓기 시작한 '문화발달센터(Centre de Dveloppement Culturel)' 다. '문화발달센터'의 특징은 기능이나 건립 등의 재정을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전담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원 범위를 20% 안팎으로 줄이고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센터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했다.

프랑스 문화부는 1989년 이 세 가지 이름으로 공존하던 지역문화센터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어 1991년 '공연연극국' 국장인 베르나르 페브르 아르시에의 제안에 따라 세 기관은 '센스나시오날'이라는 문화네트워크로 통합되었다. 같은 해 '센스 나시오날 협회'가 설립돼 실질적인 운영 방침을 결정하고 오늘에 이른다.

젊은 대중상대 연극 주류 ... 관장은 공개채용

전국 65곳(2001년 현재)의 '센스 나시오날'의 기능을 일괄적으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지역 사정마다 다르고 3년 임기로 임명되는 관장의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크게는 현대의 '무대 공연(Spectacle vivant)' 분야의 새 작품을 창작하고 그것을 확산하고 모든 대중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최대로 보장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극, 무용, 현대음악 등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조형예술(회화 사진 조각)과 영화 등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대중의 문화 감성을 키우고 청소년들의 문화교육에 일조를 하고 있다. 도시마다 비

율은 다르지만 대개 연극이 주류를 이루고 젊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공통점이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늘려온 프랑스 문화정책에 따라 '센스 나시오날' 소속 문화센터들의 재정은 대개 지방에서 분담한다. 행정 구역이 한국과 달라서 설명이 쉽지 않은데 대개 중앙정부가 25% 정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소속 시, 도 등)가 51%, 자체 수입이 22%로 분담한다. 예산은 3년 전을 기준으로 할 때 4백만 프랑(약 8억원)에서 4천4백만 프랑(약 88억원)에 걸쳐 센터마다 다양하다.

관장은 공개채용으로 선출하는데 선출에 앞서 '센스 나시오날 운영협회'에 프로젝트를 제출해야 한다. 이 속에는 3년 동안 펼칠 문화활동, 지역 대중과의 관계, 그 활동을 위한 재정문제 및 기능적 조직의 문제를 밝혀야 한다.

극단 · 고교 연계하는 '라포스트로프'

파리 북서쪽에 위치한 신도시 지역인 세르지-퐁투아즈에는 11개 시가 속해 있는 데파르트 망행정구역의 일종으로 인구 18만명의 40% 이상이 25세 이하이다. 세르지(200석)와 퐁투아즈(600석) 두 곳의 극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라포스트로프(L'apostrophe)'는 '문화 시즌'이라 불리는 11월~12월, 3월에 집중적으로 공연하는데 세르지극장은 현대무용과 음악, 퐁투아즈 극장은 현대 연극을 주로 공연한다.

그 외 기간에는 지역에 상주하는 극단이나 개인, 다른 지역 극단이지만 이 극장에서 공연할 극단 등에게 연습장으로 사용되거나 중고교나 대학교 등 젊은 관객이 연습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특이한 것은 ‘라포스트 로프’가 지역내 고교와 연계해 연출가나 배우를 수업시간에 파견해 공연작품을 맛보기로 보여주고 토론시간을 갖는 등 문화 감수성 키우기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지역 교육단체가 재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의 집은 영국 아트센터에 가까워

‘문화의 집’의 변화과정에 대해 프랑스 일부 인사들이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화분권’의 원칙이 아직 살아 있고, 전국의 센스 나시오날이 그 첨병 역할을 하고 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현실이다. 또 프랑스에서 매년 300여만명의 관객이 ‘센스 나시오날’에서 공연되는 550여편의 작품을 관람하는 그 역동성은 척박한 우리 지역문화현실을 감안하면 부럽기도 하다. 그러면 ‘센스 나시오날’에서 우리가 참고할 점은 무엇인가? 대답을 위해 우리 ‘문화의 집’과 비교하는 쪽으로 에둘러 가보자.

먼저 명칭이나 문화 향수권 확대라는 닳은 점에도 불구하고 ‘센스 나시오날’과 ‘문화의 집’은 기능과 역할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무엇보다 ‘센스 나시오날’(프랑스 ‘문화의 집’도 물론)은 공연이나 전시를 위주로 하는 중소규모 공간이란 점이다. 이에 견줘 우리 ‘문화의 집’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하에 예술적 체험 외에도 컴퓨터, 취미, 건강, 외국어 등의 생활강좌를 통해 문화 복지를 지향하려는 ‘생활밀착형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이다(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것이다). 즉 문화 공연이나 전시 기능보다는 역내 문화시설에 가까운 ‘문화의 집’은 프랑

스의 ‘문화의 집’(센스 나시오날)보다는 영국의 아트센터나 일본의 공민관과 더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차츰 지방 부담률 높이고 운영 자율성 커져야

이런 차이점에 터잡아 우리 ‘문화의 집’이 제대로 기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적으며 글을 맺는다. 역설적이게도 그 방안은 ‘센스 나시오날’의 운영 사례에서 참고했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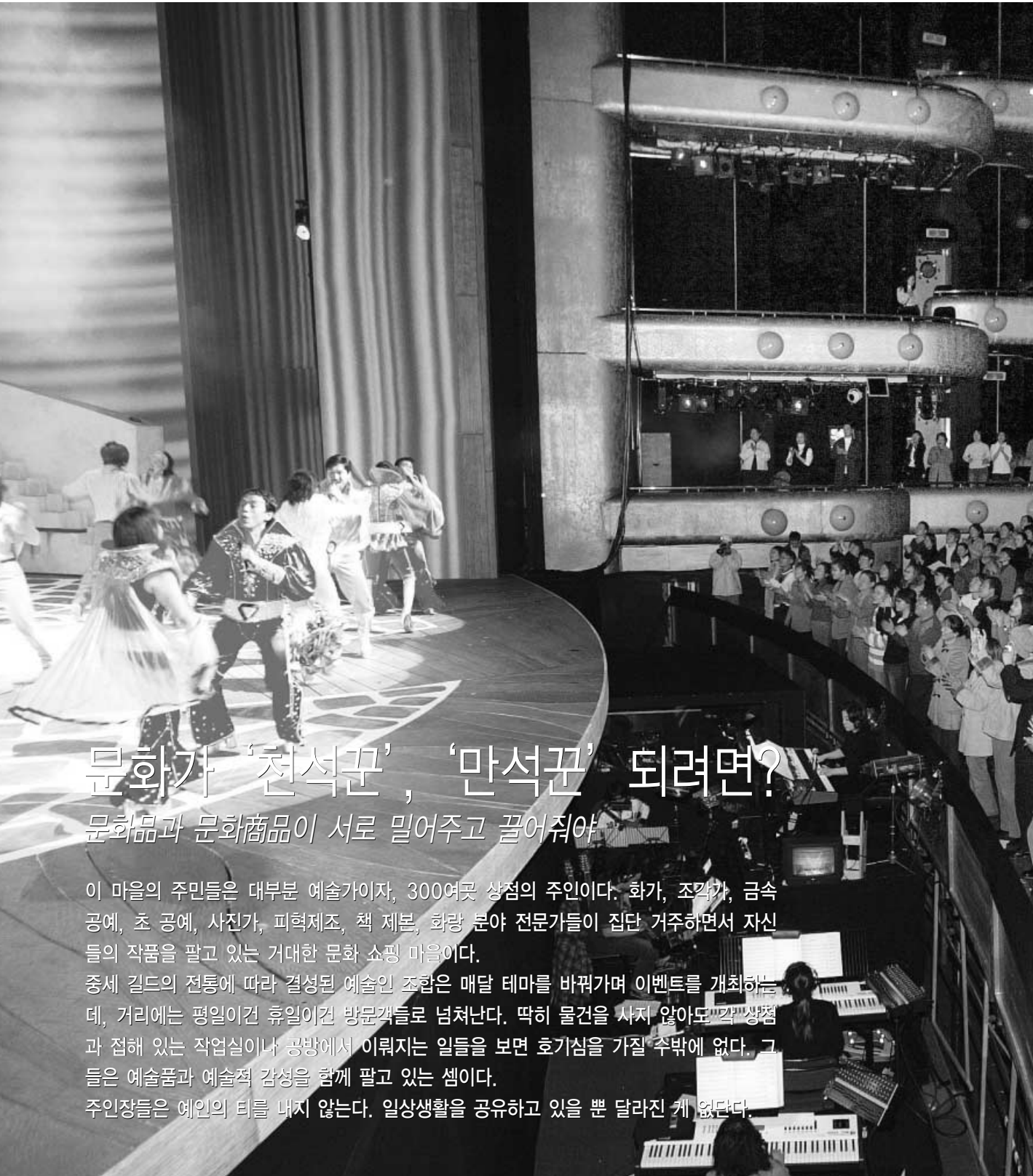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보호 방안이 선결 과제다. ‘센스 나시오날’의 경우 처음에는 중앙에서 대폭 지원하다 차츰 지방의 부담률을 높여갔다. 그러면서 운영의 자율성도 커져 문화분권의 취지에 걸맞게 자리잡았다.

역사가 짧은 우리 ‘문화의 집’도 이런 재원 확보가 가능하면 다른 과제들 예컨대 ▲운영 인력의 전문성, ▲‘문화의 집’ 적극 홍보로 역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그에 따른 지역 문화의 구심점으로서의 위상 강화 등을 모색할 수 있겠다. 여기에 아직 느슨한 연합체 성격의 ‘한국 문화의 집 협회’의 기능을 더 활성화하고 ‘교류 공연’ 등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면 문화분권 혹은 문화복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글 _ 이종수 | 서울신문 기자

서울대학교 불문과를 1990년에 졸업하고 이듬해 서울신문에 입사했다. 문화관광부를 출입하며 연극과 방송 분야를 담당했다. 지난 2001년에는 파리 5대 DEA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신문 문화부에서 문학,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vielee@seoul.co.kr)



문화가 ‘천석꾼’, ‘만석꾼’ 되려면?

문화품과 문화商品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줘야

이 마을의 주민들은 대부분 예술가이자, 300여곳 상점의 주인이다. 화가, 조각가, 금속 공예, 초 공예, 사진가, 피혁제조, 책 제본, 화랑 분야 전문가들이 집단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작품을 팔고 있는 거대한 문화 쇼핑 마을이다.

중세 길드의 전통에 따라 결성된 예술인 조합은 매달 테마를 바꿔가며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거리에는 평일이건 휴일이건 방문객들로 넘쳐난다. 딱히 물건을 사지 않아도 각 상점과 접해 있는 작업실이나 공방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보면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예술품과 예술적 감성을 함께 팔고 있는 셈이다.

주인장들은 예인의 티를 내지 않는다.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있을 뿐 달라진 게 없단다.

예인의 티를 내지 않는 주인장

‘꿈 같은 마을’. 숲과 호수를 둘러치고 있는 그림 같은 마을 풍경을 흔히 그렇게 표현할 것이다. 미국 뉴욕주 남부의 슈가로프(Sugar Loaf) 마을이 그렇다. 마을의 초입부터 펼쳐진 18세기 유럽풍 거리와 집들을 보노라면 잠시 그런 착각이 든다.

하지만 이 조그만 마을에서 상상의 즐거움을 갖게 되는 이유는 정작 풍경이 아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대부분 예술가이자, 300여곳 상점의 주인이다. 화가, 조각가, 금속 공예, 초 공예, 사진가, 피혁제조, 책 제본, 화랑 분야 전문가들이 집단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작품을 팔고 있는 거대한 문화 쇼핑 마을이다.

중세 길드의 전통에 따라 결성된 예술인 조합은 매달 테마를 바꿔가며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거리에는 평일이건 휴일이건 방문객들로 넘쳐난다. 딱히 물건을 사지 않아도 각 상점과 접해 있는 작업실이나 공방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보면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예술품과 예술적 감성을 함께 팔고 있는 셈이다.

주인장들은 예인의 티를 내지 않는다.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있을 뿐 달라진

게 없단다.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구분도 의미가 없다. 화가의 그림도, 가죽업자의 허리띠도 같은 작품(work)이다. 뉴욕주에선 부촌으로 분류되지만 200년전에 형성된 거리, 집, 정원, 다리, 숲, 사람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나그네들이 변했다.

오래전부터 문화는 ‘돈벌이’

그들에게 ‘문화가 돈이 된다’는 얘기는 새롭지 않다. 그리 물으면 “별난 질문을 다 한다”는 듯이 뚱한 표정을 짓는다. 오래 전부터 문화는 당연히 돈벌이였고, 거래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가게를 넓히고, 대량생산을 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건 문화를 모르는 소리”라는 답이 돌아온다. ‘문화품’(cultural works)과 ‘문화상품’(cultural goods)의 차이를, 다시 말해 개인의 감성·창의력의 산물인 문화품과 산업구조의 산물인 문화상품을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화품을 생산하는 창의적인 인력군(人力群)은 문화산업의 토대다. 문화상품의 경쟁력은 바로 문화품의 질적, 양적인 수준에서 나온다. 하지만 거꾸로 모든 문화품이 문화산업의 아이템

인 것은 아니다. 문화산업의 성장이 곧 문화작품의 산업화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누가 큰 돈을 벌어 ‘문화 천석꾼’이 될 수 있을까. 상업 영화를 만드는 사람일까, 아니면 천막 작업장에서 도자기를 빚는 도공일까. 슈가로프의 예인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주저없이 “모두가 문화천석꾼”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다만 산업의 영역까지 몰아갈 시장성을 갖춘 아이템인지, 아니면 수공업적 제조형태로 소자본의 전통생산 방식을 고수해야 할지가 관건이다.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문화가 돈이 된다”는 말은 결국, 산업으로서의 문화만을 지칭하는 게 아닌 것이다.

문화에는 로또가 없다

한 국가의 문화력(cultural power)은 문화품과 문화상품의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상품의 생산과 소비 논리에 따라 창의적 문화품을 바라보면 상업성의 황폐함에 빠져들고, 문화품의 잣대로 문화산업을 이끌면 소비자가 외면한다. 1992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문화가 돈이 된다.”는 선언을 시발로 국민의 정부의 ‘신지식인

선언' 까지 문화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보면 이런 구분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외치는 쪽에선 산업의 시각을 앞세웠다. 이에 반대하는 쪽에선 문화상품을 사생아 취급하기에 바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문화산업의 내부에선 저마다 '문화 로또복권'을 꿈꿨고, 시장 석권이 최종 목표였다는 점이다. 영화시장과 대형 뮤지컬 공연에 투기성 자금이 참여하는 현상에는 '대박의 꿈'이 동인이다. 하지만 문화에는 로또가 없다. 운칠기삼(運七氣三)의 요행수가 돈벼락을 몰고 온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시장분석과 문화상품의 질로 시장의 불투명성을 제거해가는 지난한 과정이 유일한 길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문화의 산업적 성공을 견인하고 있을까.

대작들의 잇따른 실패 끝에 대박

1990년대를 통과하면서 영화, 공연, 만화, 출판, 영화 등의 장르문화는 콘텐츠형 문화산업의 주류로 성장했다. 그중 '1000만 관객 시대'에 접어든 한국영화의 성장은 눈부실 정도다. 100억원대의 제작비를 들인 '실미도'(감독 강우석)와 '태극기 휘날리

며'(감독 강제규)는 입장수입만 각각 755억, 781억원을 벌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지난달 아시아판 커버스토리로 한국 대중문화의 힘을 다루면서 한국을 "헐리우드가 참패를 당한 유일한 땅"이라고 추켜세운 게 헛말은 아니었음이다.

그런데, 이런 성공은 '튜브', '아 유레디', '성냥팔이 소녀' 등 50억~100억원대의 제작비를 들인 대작들의 잇따른 실패 끝에 찾아온 것이다. 모든 진리가 그렇듯, 문화산업 성공의 비법도 간단하다. 잘 만들었거나 트렌드를 잘 읽었거나, 둘 중 하나다. 한국영화의 화두는 '블럭버스터'가 아니라 '웰메이드'(well-made)인 것이다.

'태극기...'는 영화제작 기법에서 속도감 있는 전개와 영상적 메시지의 전달력을 극대화했다. 잘 만든 영화다. '실미도'는 영화기법에선 크게 진전하지 못했지만, 상업영화 성공의 최대 요건인 트렌드를 읽었다. 시대 비틀기, 역사물의 퓨전 장르화라는 흐름을 탄 것이다.

지난달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올드보이'(감독 박찬욱)는 웰메이드와 트렌드에서 모두 성공작이었다. 개인에 대한 비정상적 심리 설정은 마이너리티의 삶에 관심을 두는 트렌드와 맞아떨어져 금기 소재에도 불구하고,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액션 장르의 상업영화이면서도, '웰메이드=예술성'이라는 진부한 관념을 깨

버린 것이 가장 큰 소득인 셈이다.

공연의 대형화도 마찬가지다. 2001년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100억원대의 투자와 수익모델을 만든 후 앞을 다뤄 대형화가 등장했다. '투란도트'를 비롯한 '운동장 오페라'와 '천막 뮤지컬'이 선보였지만, 기업 협찬금으로 겨우 큰 적자를 면하는 정도로 실패연속이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월~4월의 뮤지컬 '맘마미아'가 100억원의 제작비를 들여 30억원의 이익을 낸 것은 '웰메이드'였기 때문이다.

문화품과 문화상품의 불균형 줄여야

지난해부터 출판계를 주도한 흐름은 '나'와 '마이너리티'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형성된 '구조조정' 바람이 조직과 주류에 대한 관심을 낳았다면, 2002년 이후 독자들은 자기개발, 웰빙(well-being), 소수자의 삶 등 '개인의 발견'에 눈을 떴다. 생활사에 중점을 둔 미시사, '아침형 인간'을 필두로 한 자기개발서, 인디언 티벳 등의 소수인종과 종교관련서가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았다.

한 문학작품이 만화, 게임, 영화의 분야로 수익이 확대되는 '원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use)의 현상을 자주 접하게 된 것도 웰메이드와 트렌드 읽기의 소산이다. 일상의 삶조차도 힘겨웠던 60년대를 그린 위기철의 소설 '아홉살 인생'은 만화와 영화로 제작돼 주목을 받았다. 영화 '올드 보이'의 원작도 만화다. 최인호의 '상도'는 드라마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중국에도 판권이 수출돼 스테디셀러가 됐다.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화 열풍'을 낳더니, 어린이용 만화 '그리스로마 신화' 시리즈가 '해리포터' 시리즈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는 기현상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문화의 산업적 성공이 '문화품의 희생' 덕분이라는데 안타까움이 커진다. 영화시장은 제작과 배급을 장악한 대자본의 위력에 스크린의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고, 대형 뮤지컬의 성공에는 대학로 연극가의 쉼없는 객석을 함께 떠올려야 한다. 등록출판사가 2만여개에 이르지 않지만 이중에 8~9%만이 살아 움직이고, 출판계는 수년째 '단군 이래 최고의 불황'이란 불멘 소리를 달고 있다. 한국 문화산업의 성장에 주된 걸림돌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품과의 불균형에 있는 것이다. 어느 한쪽의 우뚝한 생각만으로는 '천석꾼'이 되기 힘들다.

지난달말 문화관련 단체들이 모여 '기초예술 살리기 범 문화예술인 연대'를 출범시켜 불균형인 상황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가장 원초적인 생명활동인 기초예술이 위축되면 문화생태계는 파괴되고 문화적 자원도 고갈된다". 성장불균형에 대한 문화품 생산자들의 절박한 호소일 것이다.

미래 문화시장에서 성공요건은 '인간화'

그럼에도 문화시장의 성공은 지속 가능한 것일까. 독일의 미래학자 마티아스 호르크스는 '미래, 진화의 코드를 읽어라'라는 책에서 미래산업의 유망 분야로 '감성시장'을 꼽았다. 그 영역을 나눠놓은 것이 흥미롭다. 역량과 창의성을 파는 '용기를 주는 시장', 문화적 이벤트와 연출을 파는 '문화시장', 고요함과 안정을 파는 '릴렉스 시장' 등이다. 한마디로 광의의 '문화시장'이다.

영역은 다양하지만 이 시장을 관통하는 특징은 인간의 관심, 애정, 동경, 희망이 제품화돼 있다는 것이다. 바로 문화품, 문화상품의 속성을 가리킨다. 그것들은 모든 산업제품의 미래 화두인 '인간화'의 핵심이다. '문화 천석꾼'은 신화가 아니라 현실이다. 상업영화 제작자도, 천막 작업장의 도공도 '대박의 꿈'을 좇기보다 그런 현실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글 _ 오승훈 | 문화일보 기자(차장대우)

이 글을 쓴 오승훈 기자는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문화일보 기자로 국회, 문화

관광부, 노동부, 환경부 등을 출입했다. 지난해 미국 뉴저지주 페어리디킨스 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스쿨에서 1년간 방문연구원으로 '세계화와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연구했다. 현재 문화일보 am7부에 근무하고 있다.



문화기부금 공금하세요?

문예진흥원, 메세나협의회에 노크하세요

국방성금, 불우이웃돕기, 수재의연금, 크리스마스 실 등 때마다 무슨 날이면 내곤 하던 각종 성금들을 기억한다. 때로는 맡겨둔 돈 찾아가듯 하던 그것들은 당시 어린 생각으로도 마음을 담아서 전해야 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던 듯 하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다양한 기부행위에 대해 남의 일, 과시욕, 특이한 사람, 성인(聖人)으로 치부하며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한다. '콩 한쪽도 나눠먹는다'는 말을 새삼 꺼내놓지 않더라도 이제 기부는 부의 사회환원을 넘어 일류기업의 상징, 선진국민의 척도가 된지 오래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수많은 예술가들은 가난했다. 평생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생을 마친 고호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편지를 썼던 모네, 우리의 경우에도 소월과 같이 가난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가난한 예술가의 숙명(?)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30~40대 전업연극인의 경우 1년 수입이 300~500만원 정도로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물론 대중문화계나 몇몇 예술인들의 경우 일반인들의 그것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문화예술 종사자들에 대해 더 이상 그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문화를 살찌우는 일은 이들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길임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문화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문화 기부금’에 대해 눈을 돌려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굳이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80년대 미국 뉴욕에서 벌였던 ‘Give Five(자신들의 수익에서 5%를 문화에 투자하는 운동)’나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에서 20여년 전부터 벌이고 있는 ‘Mecenat(메세나 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 예술 살리기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난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과 함께 문예진흥원이 주체가 되어 금주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1994년에는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현 한국메세나협의회)가 설립되어서 문화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문화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10년 뒤 혹은 100년 뒤의 국가와 민족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나 기업이 문화예술에 투자한다는 것은 자선이 아니다. 국가나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동시에 이를 통한 구체적인 효용성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메세나협의회

어린이 대상으로 문화저금통갓기운동 계획

‘문화를 통한 사회공헌’을 목표로 지난 94년 설립된 한국메세나협의회는 대기업을 비롯해 벤처, 중소기업 등 176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가 최근 국내 500대 기업(매출액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97개 기업이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펴고 있으며, 지난해 이들 기업은 총 1517억원을 문화예술 부문에 지원했다. 협의회는 찾아가는 메세나, 메세나 도네이션, 메세나 대상 등 다양한 형태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특히, On-Line 매칭서비스를 통해 문화예술단체와 지원 기업을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박찬 기획운영국장은 “해외의 메세나 운동은 개인이 90%에 달하는데, 국내의 경우 100% 기업이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닐 정도”라며 “때문에 개인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이나 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최근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의 문화예술지원은 주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예술단체간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며 “메세나협의회라는 투명한 창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지원활동으로 기업과 예술단체 모두가 Win-Win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올 하반기에는 ‘Art of Children’이라는 주제 아래 어린이들의 문화 접근 기회를 늘리는 문화 저금통갓기 등 다양한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www.mecenas.or.kr | 02.761.3101~3



메세나(mecenas)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활동이나 지원자’를 뜻하는 프랑스어. 고대 로마제국의 아우구스트 황제의 대신이자 정치가·외교관·시인이었던 가이우스 마에케나스(Gaius Cilnius Maecenas, BC 67~AD 8)가 시인 호러스(Horace), 버질(Virgil) 등 당대 예술가들과 친교를 두텁게 하면서 그들의 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로마를 예술강국으로 이끌었던 점에서 유래한 말. 대표적 예로는 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의 대예술가들을 지원한 피렌체의 메디치가(家)나 최근에는 미국의 카네기 홀, 록펠러 재단 등이 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 · 교육 인프라 구축에 비중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우리 문화예술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지난 1973년에 설립됐다. 지난해 말까지 모금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술극장, 마로니에 미술관 건립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문화예술연수원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진흥원을 통한 기부는 지난해의 경우 개인 60건(4억5000만원), 법인 234건(41억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금개발팀 임주연씨는 “문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액이나 건수에 있어서 편차가 높게 나타나므로 통계가 큰 의미를 갖기는 힘들다.”고 전제하고 “2002년과 비교해서 개인의 기부가 금액 및 건수면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메세나 협의회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활

동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진흥원은 향후 개인의 기부를 확대하는데 포커스를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금사업을 통한 직접지원 이외에도 문화예술 공간 건립, 교육 및 자료관을 세우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문화기부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같은 팀 곽은석씨는 “문화예술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 분야에 대한 기부는 사회의 다른 여러 분야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경우 문화기부가 자선행위가 아닌 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한 소비자의 긍정적 태도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고 밝혔다.

www.kcaf.or.kr / 02.760.4500

문화 기부 이렇게 하세요!

순수 기부금

문화예술진흥원 고유사업 및 기금 조성에 사용된다. 부유층이 아닌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액수에 관계 없이 후원할 수 있다.

조건부 기부금

기부자가 특정 문화예술단체의 사업에 대해 지정 기부하는 방식. 순수기부금과 같이 액수에 제한이 없으면서 동시에 실명제 기부금처럼 지원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실명제 기부금

기부자의 실명을 단 기금을 조성·운용하여 그 수익금으로 지원한다. 단 기부금액 한도가 1억원 이상이다. 제일화재의 세실극장 후원, 태런트 고두심씨의 다중문화동인 후원, 국민은행의 서민악극 후원이 대표적 사례다.

세제혜택

문예진흥원을 통한 기부의 경우 기존의 소득세법(10%), 법인세법(5%)에 따르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50%까지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취재 _ 윤선용 기자

사진제공 _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메세나협의회

‘인천의 메세나를 어떻게 키우나’ 토론회 신선한 충격



기업과 문화예술간의 바람직한 파트너십 ‘메세나’

예술, 문화, 과학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지원을 의미하는 ‘Mecenat’ 라는 프랑스어가 지니고 있는 참다운 의미와 실현방법에 대해서 최근 인천지역사회가 다시 한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메세나의 개념은 기업들의 조건 없는 지원을 통해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사회공헌적 성격의 문화지원 및 후원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기업들은 메세나활동을 통하여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기존의 개념에서 한발 앞서 문화예술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기업과 그 브랜드를 제고시키는 전략적인 마케팅으로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요즘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들에게 일방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기업의 어려움을 같이 이해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해야만 기업과 문화예술계간의 바람직한 파트너십이 형성될 것이다.

정부와 문화계가 동참하는 협의기구가 필요

문화원연합회 인천시지회는 지난 12월 3일 ‘기업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방향모색’ 토론회를 열고 인천지방의 기업메세나운동 확산과 정착을 위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지역 기업인이나 문화예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미술평론가 이정모 인천대겸임교수와 박찬 한국메세나협회 사무국장, 그리고 기업인, 행정공무원, 사회단체, 시민을 대표해서 나선 지정토론자들은 의견 개진을 통해 한결같이 인천의 기업들이 문화예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영복 전인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등은 문화예술계도 지금까지의 후원요청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기업메세나운동에 참여하는 기업을 위해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기업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지역내 문화예술단체를 도와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야 할 것이라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기업메세나는 PR·공익 ‘두마리 토끼’

우리나라 근대기업 백년사에 처음 있는 기업메세나운동은 물질적인 생산활동과 정신적인 창조행위를 하나로 접목할 때 나라의 위상과 국가경쟁력이 함께 제고될 수 있다는 인식과 공감대위에서 출발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이유는 순수하게 공익을 위하여 기부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기업의 평판과 이미지를 좋게하

지역 문화 발전의 초석을 마련해 살만한 도시 만들자

이제 기업메세나운동을 성공적으로 인천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상공인의 모임, 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기업인들에게 메세나운동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또한 우리 문화예술계에서도 지역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의지를 보여야만 되겠다.



고, 고객들과 근로자들에게 보답하며 나아가서는 기업과 상품의 홍보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한국메세나협의회에서도 앞으로 기업이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업과 문화예술의 연대에 노력할 방침으로 여러 가지 실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메세나협의회는 ‘찾아가는 메세나’ 운동을 통한 문화의 대중화와 ‘도네이션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모아 메세나 영재발굴 활동 등을 통한 문화발전을 지원하고 자연, 환경 등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여러 문제점들도 문화의 범위로 포함시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작은 메세나’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작은 메세나’ 운동은 각종 공연이나 전시 등 문화관련 행사 티켓구입하기, 문화상품 구입하기, 연극이나 영화 관람하기, 책 선물하기 등 소규모의 메세나운동부터 유명문화예술인의 고향에 동상·시비세우기, 거리간판 문화개선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운동이다.

그러나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천의 큰 기업 대부분은 본사를 서울에 두고 기획 경영팀이 본사에 있는 관계로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문화예술 단체를 직접 지원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애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제 전국문화원연합회 인천시지회는 보다 발전적으로 인천지역 기업메세나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2004년도에는 두 번째로 기업메세나 관계 토론회를 갖고 인천지역 기업메세나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고 보다 나은 전개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과 더불어 세계속의 인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인천이 국제도시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차원높은 문화예술을 주민 생활과 연결시켜, 개발시킴으로써 세계인이 함께 어울려 살만한 도시로 가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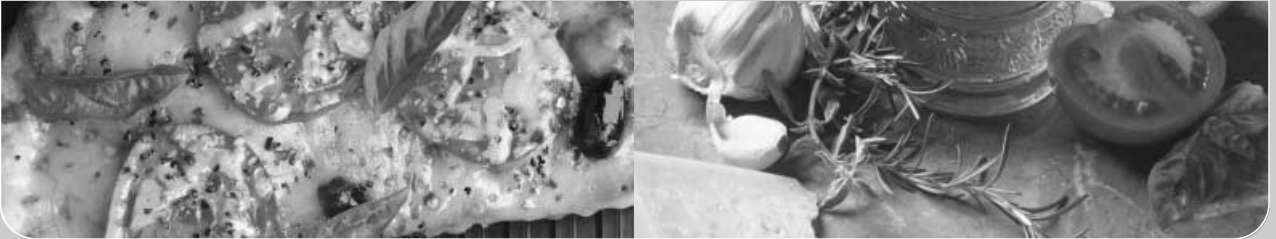


글 _ 허문명 | 전국문화원연합회인천시지회장
현재 부평문화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당국대 총무처장과 중앙도서관장을 역임했다.

패스트푸드 VS 슬로푸드

Fast Food Slow Food

요즘 우리 사회는 ‘웰빙’이 지배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겠죠. 그래서인지 하루가 멀다하고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죠. ‘슬로푸드’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해 ‘햄버거’로 대표되는 패스트푸드는 대량생산을 위해 방부제, 조미료 등 인공의 것을 가미하는 반면, ‘슬로푸드’는 전통적인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말합니다. 우리의 경우 된장, 고추장과 같은 발효식품이 대표적이죠. 슬로푸드는 하나의 문화캠페인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지난 1986년 이탈리아 로마에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업체인 맥도날드가 진출하면서 전통음식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속도를 강조하는 현대 문명에 맞서 느낌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지자체는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슬로푸드 체험장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우리 나라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석유 대신에 소나무 뿌리를?

본격적인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을 고민하던 많은 이들이 선인들의 지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소나무를 활용하는 것이죠. TV 사극에 나오는 등불을 연상하면 이해가 쉽죠. 소나무에서 옹이부분(관솔)을 골라낸 다음, 여기서 소나무 기름(송유, 송근유, 송진유)을 뽑아내서 이것을 연료로 사용한 것이죠. 시골에 살았던 분이라면 어렸을 때 한 번씩은 해봤을만한 쥐불놀이때 강통안에 넣던 것이 바로 이 소나무 관솔이죠. 2차 대전 당시에는 일본군에서 자원부족으로 인해 비행기 연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이 소나무 연료를 충당하기 위해 무분별한 채취를 일삼는 바람에 국내의 많은 산림이 훼손된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이 소나무 기름은 경제성이나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실제 화석연료인 석유를 대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즘도 죽염을 만들 때 송진을 더해 화력을 높이기도 하고, 최근 한 국내기업은 알코올 연료를 개발하면서 천연 송진 반응물에서 추출한 촉매제를 사용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새로운 인터넷 언어, 이모티콘 (Emoticon)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상의 통신 언어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전달하지 않는 것이어서 말(구어)과 다르게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을 보완 하는 것이 바로 이모티콘. 키보드 글자나 부호들의 짧은 나열을 통해 보통 얼굴표정을 흉내내는 방법을 통해 느낌을 나타낸다. 신세대나 네티즌들은 문장 끝에 이모티콘을 첨가하거나 대화 사이사이에 말 대신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컴퓨터 통신이나 채팅을 부드럽고 재미있는 분위기로 이끈다. 또한 이모티콘은 현재 휴대 전화의 문자 메시지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재미있는 이모티콘 몇가지

- | | | | |
|-----------------|----------|-------------------|-----------------|
| ^^ 웃음 | ^ ^ 신남 | ^_+ 워크 | ~O~ 입크게 하품 |
| T.T 눈물 | (^.) 워크 | *,* 메롱 | ~●~ 암전하게 하품 |
| :~O 놀람 | ^~ 워크 | ㅠ.ㅠ 우는 얼굴 | (^_^)/ 안녕! |
| -.- 언짢음 | (^.-) 워크 | (-.-)(-.-)(-.-) | (.)_(.) 아래를 보세요 |
| -.-;; 썩스러움, 황당함 | ^_- 워크 | 두리번 두리번 | |
| *** 부끄러움 | (-.) 워크 | -.-)..... 어이가 없어서 | |
| ^^ 행복 | ^~ 워크 | -.- 잠자기 | |



아버지 생각

조그마한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꿈이었습니다.
정히 한번만이라도 좋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신을 넓은 등에 가만히 업고서는
강물이 잘 보이는 고향의 언덕길을
한 십리쯤 말없이 걸어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아장아장 내려오는
산골짜기 바위 위에 살포시 앉히시고
어루만지듯 두 발을 씻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가던 걸음을 멈추고는
어느 날 무심코 뒤를 돌아다보며
아버지 하고 소리 내어 불렀을 때
당신은 이미 그 어디에서도 계시지를 았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듯 한사코 머릴 흔들었지만
당신은 이미 그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인 _ 김용오

경북 포항 출생, 건대대학원 수료, 월간 '시문학' 통해 등단, 현대시인상 수상, 시문학상 수상, 저서로는 시집 '신의 수염', '동화작용', '두 사람에 관한 성찰', '멀티 오르가슴', 잠언집 '시인모독' 등. 한국문인협회 시분과 회장

P E O P L E

향토사학자 젊어진다!

향토애와 전문성을 겸비한 8명의 젊은 지역사 연구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이를 흔히 향토사학자·향토사학가·향토사가 등으로 부른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무엇보다 지역, 특히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다. 때문에 그들은 고된 답사나 피말리는 연구도 단지 자기가 좋아서 그 일을 할 뿐이다. 그러나 힘들고 외로운 작업에 비해 보수가 따르지도 않고, 사회적인 명예와도 거리가 멀다. 향토사에는 젊은이들이 드물다. 아마 젊은이들 대부분이 힘든 지역사 연구보다는 '폼나는' 예술이나 문화운동을 원하는 것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여기에 소개되는 이들은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젊은 향토사가들이다. 그들은 고학력과 그에 따른 전문성을 갖춰 각자의 영역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전국향토문화공모전에서 수차례씩 수상한 실력자들이다.



대전

강성복氏

대전의 강성복씨(40, 姜成福)는 일년중 대부분의 시간을 현장답사로 보낸다. 답사를 일삼아, 놀이삼아 즐기고 있다면 딱 들어맞는 말일 것이다. 몇 해 전 그는 금산의 송계(松契)를 연구하기 위해 이태동안 400여 마을을 오로지 발품을 팔아가며 현지조사를 했다.

그는 대전과 충남·북 지역의 민속을 연구하여 발행한 단행본이 1992년 '용화리의 역사와 민속'을 시작으로 '금산의 탐신양', '금산의 송계' 등 10권이 넘는다. 논문과 조사보고서까지 합치면 웬만한 학자가 일생을 연구하여 얻은 업적과 맞먹는다. 또 전국향토문화공모전에서 탐신양(1997년)과 송계연구(2001년)로 두 번에 걸쳐 대상을 수상했다. 일에 빠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성미도 그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원동력이겠지만 아마도 타고난 천재성이 아닐까 한다. 그는 '금강 문화사' 같은 충청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중에게 쉽게 알리기 위한 작업을 구상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거나 아직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소재를 찾았을 때는 심마니가 산삼을 발견한 기분”이라며, “그런 날은 내 마음을 알아줄 벼를 불러 거나하게 한잔한다.”고. 다른 향토사가도 다들 그럴 것이다.

해남 정운섭氏

정운섭씨(40, 鄭允燮 해남군청)는 고향인 전남 해남의 향토사가이자 문화활동가이다. 해남향토사연구회 등의 활동과 홈페이지 ‘해남사랑’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의 청소년에게 해남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데 열성이다. 또 해남의 대표적 시인인 김남주와 고정희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알리고 생가복원이나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해남윤씨가의 녹우당 등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씨족사와 향촌사회, 해남 출신의 인물 연구를 통해 향촌사회의 경향이나 중앙정치와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이러한 그의 연구는 자연스럽게 요즘의 지방분권과도 맥이 닿는다. 그는 “조선시대의 향약 등 자치규범에 관한 부분을 연구하여 현재의 지방분권화와 비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좀더 풍부한 문화적, 정신적 토대위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 현재 목포대 대학원 지방사학과 박사과정에 있다.

“젊은 양반이 대낮에 뭐하는 거웃”

답사를 다니다보면 어려운 일도 많이 겪는다. 강성복씨는 7년전 진안의 용담댐 수몰예정지를 답사할 때 땅벌집을 건드려 벌떼가 새끼뿔뿔이 달려드는 바람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일이 있다. 한참이 지나 정신을 차려보니 온통 벌에 쏘여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래도 벌에 놀라 내팽개친 카메라와 답사노트를 찾아오기 위해 땅바닥에 배를 깔고 낮은 포복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벌집근처로 다가가는데, 근처에서 꿀을 베고 있던 노인의 눈에 아무래도 이상했던지 “젊은 양반이 대낮에 뭐하는 거웃”라고 한마디 하더라고 한다. 이인화씨도 답사중에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했고, 벌에 쏘여 온몸이 퉁퉁 부어 죽을 뻔한 일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암벽에 새겨진 ‘민백준 청덕홀민비’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천안 백승명氏

충남 천안의 백승명(36, 白承明) 직산위례문화연구소장은 젊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한학에 밝다. 할아버지가 마을 훈장을 한 덕에 어릴적부터 한학을 공부

“당신 간첩이야?”

정우영씨는 성곽연구를 하다보면 군부대가 주둔한 부근을 답사를 때도 많다. 1994년 봉수대터와 성곽을 사진 촬영하다 간첩으로 오인받아 군 정보사요원에게 필름을 압수당하고 밤늦게까지 취조를 당하는 고생을 했다. 김종규씨도 간첩으로 오인받은 경험이 있다. 봉수대 연구를 위해 군부대 인근을 답사하다 가방에서 지도와 나침반, 카메라, 야전삽 등이 나와 꼼짝없이 간첩으로 몰려 홍역을 치렀다. 또 군산의 선유도 인근의 도서를 답사할 때는 도굴꾼으로 몰리기도 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동학인물사 연구로 널리 알려진 전북 정읍의 최현식 선생은 70년대에 답사를 다니다 간첩으로 몰려 수차례나 경찰서를 드나들었다.

하여 웬만한 고서도 막힘이 없다. 관심분야 역시 금석문이나 한적(漢籍)류이고, 이미 여러권의 번역서를 냈다. 그는 1987년경 한국 상고사연구에 평생을 바친 김재봉(金在鵬, 2002년 작고) 선생과의 만남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향토사 연구에 뛰어들었다. 결코 간단치 않은 백제의 위례성(慰禮城)과 주류성(周留城) 연구에 집착하는 것도 선생의 유지이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안성지역의 미륵불과 육상교통이나 주변 지역의 산과 물, 지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얼마전 「譯註 新增東國輿地勝覽-稷山 木川縣편을 중심으로-」라는 번역서를 탈고했다. ‘여지승람’에 기록된 현장을 죄다 답사하면서 실측과 역사의 기록을 비교하여 집필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발로 쓴 글’이라고 했다. 그렇게 발품을 팔다보면 기존의 해석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고대의 금석문을 발견할 때도 있다. 그 궁금중이 그가 향토사에 빠져드는 가장 큰 이유다.



진안

이상훈氏

이상훈씨(39, 李相勳 전북 진안여중)는 진안 등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민속을 연구한다. 특히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전통지리사상인 비보풍수(裨補風水)에 애정을 갖고 있다. 대학 1학년 때인 1984년 최창조씨(풍수연구가, 전 서울대교수)와 완주지역 풍수답사가 풍수연구의 계기가 되었다. 2002년에는 전국향토문화공모전에서는 「진안지역 마을풍수에 관한 연구」로 자료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는 “현장에서 민속의식만 조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속신앙물이 왜 그 자리에 세워졌는가를 풍수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지난해 ‘진안지역 탐신양’을 펴냈으며, 그동안 전라북도 지역의 민속을

정리해 발간한 단행본이 ‘진안의 마을신앙’ ‘전북산간지역 마을공동체신앙’ 등 10여권 가까이 된다. 요즘의 그는 무진장(무주·진안·장수), 임순남(임실·순창·남원) 등 전라좌도 지역에 분포하는 돌탑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는 풍수를 푸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인데, 앞으로 민속신앙물의 실체를 풍수적 관점에서 연구하여 비보풍수를 종합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당진 이인화氏

충남 당진의 이인화씨(39, 李仁和)는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1996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책을 내고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당진향토문화연구소와 내포민속문화연구소의 소장 일도 맡고 있다. 최근에는 동국대에서 박사과정까지 수료했다. 그의 주요 연구분야는 민속이다. 좀더 자세히 한다면 민속지리학이다. 그는 “그 민속이 잉태한 자연·인문지리적 환경과 역사적인 배경속에서 그 민속을 바라봐야 그 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기지시줄다리기를 새롭게 조명했고, 충남서북부 지역의 동학세력의 존재를 처음 알렸다. 그는 요즘 내포지역(홍성, 예산, 서산, 태안, 보령, 아산, 당진)의 민속과 동학, 의병연구와 서해안 갯벌의 간척역사를 밝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민속과 교통발달과 관련, 서낭당·성황당을 통해 옛도로를 복원하고 있으며 수리민속과 마을형성 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서울 정우영氏

서울의 정우영씨(39, 鄭又榮)는 고대 성곽(城郭)연구자다. 특히 고대의 군사유적지나 국가간의 국경연구, 지명의 변천과 유래 등을 통한 고대 군사지명이 주요 연구분야이다. 조선시대 경기읍지의 국역작업 참여와 성곽연구자인 김성호(金聖昊, 전 용산공고 교사)박사의 영향을 계기로 향토사에 관심을 갖게

백승명씨의 골동품 자가용

하루에 두어번의 시내버스가 전부인 시골마을을 답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필수다. 강성복씨는 차가 없어 늘 버스를 이용한다. 이상훈씨도 마찬가지다. 운전도 못하고 차도 없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때가 많다. 그래도 백승명씨는 나은 편이다. 승용차는 아니지만 트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차가 골동품이다. 15년 가까이 되다보니, 겉으로 봐도 일찌감치 폐차하고도 남아 보인다. 조수석에 앉아 발 밑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란다. 철판이 부식해 밀바닥에 구멍이 송송 뚫렸다. 얇은 채로 밀바닥으로 뚝 떨어질 것만 같다. 그런데 주인은 끄떡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 말에 안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되었다.

그는 2002년 '묘회암지'의 실체를 정확히 밝힌 「백련사와 묘회암지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논문을 통해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박물관 등에서 잘못된 연구 발표해 학문적 혼동을 일으켰던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다. 매년 한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그는 요즘 묘장제를 통해 고찰한 백제인들의 주요 이동경로에 대해 연구중이다. 금년 12월에 '경기향토문화'와 중국 칭도대학 논총에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장위중학교 한문교사인 그는 학문적 영역을 넓히기 위해 요즘 중국 유학을 준비중이다. 이미 중국 산둥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전북

김중규氏

전북 군산의 김중규씨(38, 金中奎)는 군산시청 학예연구사다. 대학때 민속학 연구 동아리 활동을 시작으로 사회에 진출해서도 향토사와 문화단체 활동을 했다. 뒤늦게 공무원이 되어 군산의 역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서른의 젊은 나이에 '군산사랑'이라는 향토사 인문서를 집필할 정도로 연구와 집필에 몰두하면서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서해안 지역의 수산사나 일제시대에서 1960년대까지의 생활사에 관심이 많다. 근래에 금강의 역사와 금강인근 주민의 삶과 포구와 나무터를 연구하고 있다. 곧 단행본이 나올 예정이다. 그는 해방이후의 자료들은 일제의 조사자료를 번역한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한 후 현장을 방문하는 저인망식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한 연구방식은 이미 공개된 자료 외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유적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군산의 오성산성도 문헌에도 나오고 관광지 개발도 되었지만 정작 답사후 관광지 내에 버젓이 토성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울진

심현용氏

경북 울진의 심현용씨(36, 沈賢容)는 요즘 강원도 강릉에서 '막노동'에 비유되는 고고유물 발굴에 참여하고 있다. 관광업계 회사원이었던 그는 고향 울진의 문화유적에 관심을 갖고 부터 전업을 했고, 역사고고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지금은 강원문화재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다.



그동안 그는 울진지역을 중심으로 태실(胎室)

이나 지석묘, 불교문화재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울진의 태실 논문은 4년에 걸친 조사와 연구결과로 훌륭한 조사보고서로 평가를 받았다. 학계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태실이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발굴과 연구가 진척되면 고려와 조선시대 왕실의 가계도가 새롭게 밝혀질 수 있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는 신라가 동해안(경주에서 강릉까지)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복속한 지역의 지배과정을 밝혀내고자 한다. 또 진한의 한 소국인 우중국(또는 우유국)으로 알려진 고향 울진의 고대국가 성장과정과 동향도 앞으로의 과제다. 그런 이유로 틈만나면 울진지역의 지표조사에 열중하고 있다.

향토사연구자는 간혹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지역에 대한 선입관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지역연구 또는 수집한 자료의 양이나 가치는 대단하다. 단지 학문적 정리가 과제로 남을 뿐이다.

김중규씨는 “향토사가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로 지역주의와 우리고장의 것이 최고라는 침소봉대식 논리, 문헌이나 자료를 인용하지 않고 주관적 판단이 앞서는 성급함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성복씨는 향토사가들이 아마추어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나름의 무기 즉 자신만의 전문영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향토사가는 사냥개 취급도 받는다”

향토사가들이 밝혀낸 성과가 간혹 다른 이의 연구업적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다. 이인화씨는 그가 2001년 국가보훈처 논문공모에서 수상했던 「소난지도 총(塚) 연구」논문의 경우, 모대학 교수가 몇가지 자료를 추가하여 본인의 연구성과인 낭 발표한 일이 있다. 백승명씨도 본인이 연구한 논문을 모 지역인사가 자신의 논문으로 발표한 사례가 있다. 이인화씨는 “선행연구자의 수고를 인정하는 학계의 풍토가 없는점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백승명씨는 “이럴 땐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지만, 향토사연구를 숙명처럼 여기면서 마음을 다잡고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간다.”고 말한다. 서울의 김민수 선생은 언젠가 “향토사가는 사냥개 취급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향토사가들이 겪은 또다른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일 것이다. 그 일이 돈과는 상관없다는 점이 큰 이유가 된다. 강성복씨는 ‘유일한’ 직업이 향토사가이고 몇분의 원고료외에는 뚜렷한 수입이 없다. 백승명씨는 시골에서 중장비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지만, 구멍가게보다 못하다. 원칙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예산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욕심을 내고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잘 되는 사업보다는,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늘진 곳에 쓰여져야 마땅하다. 특히 문화분야는 더욱 그렇다. 정부에서 각종 사업을 위해 무슨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데 문화분야만 보더라도 향토사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 향토사가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기대하기 어렵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서 그 덕에 집 팔아 박물관 지었지!”라며 자랑하며 사
 좋은 옷은 지는 김정은씨. 그의 사람 좋음(?)은 여기를 이기지 못하겠지. 사회에
 좋은 석인과는 별도로 한권 두권 쌓이기 시작하 채들 관람객들이 자유
 다. 박물관을 한데 모으려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채들 관람객들이 자유
 게 읽어보고 필요하다면 공짜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사람박물관-얼굴’ 세운 김정옥 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아파트 팔아서 박물관 지었습니다

“ 내가 좋아서 모았지만 1000여점을 넘어가다 보니,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기왕이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죠.
 또, 만약 기증을 한다고 해도 잘 정리해서 한번에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팔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가는 것이
 옳은 일인 듯 싶어 욕심을 좀 부렸죠. ”



아파트 팔아서 박물관 지었습니다

‘얼굴’에 대한 미술적 관심과 인간애

일평생 연극을 향한 열정을 불태웠던 연출가 김정옥씨(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가 인생의 황혼에서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무대를 열었다. 조선시대 왕실 도요지로 유명한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팔당호가 손에 잡힐 듯한 아름다운 언덕 위에 아담하게 자리를 잡고 앉은 ‘사람 박물관-얼굴’. 40여년간 틈틈이 모아온 석인 400점을 비롯해 목각 인형, 탈, 사람 얼굴을 본 판 와당 등 1,000여점이 전시돼 있다. 다양한 작품들이 모였지만, 공통된 주제는 바로 ‘얼굴’이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갔을까요. 하지만 그 가운데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없다는 점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 아니겠어요?” 사람의 얼굴에 대한 호기심과 미술적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애를 바탕으로 이 박물관은 우리곁에 자리 잡게 됐다.

‘필요한 건 그냥 가져가세요’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서 그 덕에 집 팔아 박물관 지었지!”라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짓는 김정옥씨. 그의 사람 좋은

(?)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석인과는 별도로 한권 두권 쌓이기 시작한 책들을 이번 기회에 박물관으로 한데 모으려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책들을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읽어보고 필요하다면 공짜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단다.

“주변에서야 한 500원이라도 받고 팔라고 난리였지. 하지만 그보다야 이 곳까지 찾아준 고마운 사람들이 읽고 싶다면 그냥 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연극관련 서적에서부터 희귀한 일본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의 소장도서를 직접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가져 갈 수 있다니...

이에 질세라 부인 조경자씨도 그 동안 애지중지 모아온 100여점의 찻잔을 전시하고, 박물관을 찾는 이들이 원하는 찻잔에 향기 넘치는 녹차를 담아 내준다. 내 것을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리마는 선뜻 이런 일을 행하는 이들 노부부를 보고 있자니 ‘사람 좋다’는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 그 무엇이 느껴진다.

퓨전공간, 종합예술공간 만들기

그가 본격적으로 석인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지난 67년. “서울 신촌일대에 버려진 석인을 리어카에 싣고 온



박물관 이렇게 갔어요 ^^

서울에서 올림픽 대로를 타고 미사리를 지나 팔당대교를 건너서 춘천 가는 예전 길(교불교불)로 갑니다. 조금만 가면 팔당댐이 나오는데 여기를 건너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퇴촌 방향으로 계속 직진입니다.

광동교를 건너서 나오는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바로 나오는 네거리에서 분원리 방향으로 좌회전해서 2km 정도 들어오면 오른쪽에 농협 남종지점이 있구요. 왼쪽으로 사람 박물관 '얼굴' 표지판이 보여요... (아무래도 무지막지하게 돌아간듯한 느낌이 --; 다리를 2번 건넜다는...ㅠ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1만원만 주면 충분히 살 수 있었죠. 석인들 하나 하나가 국보급 문화재는 아닐지 몰라도 이름 없는 예술가들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또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시작된 그의 수집은 해외 세미나와 공연 때에도 이어져 세계 각국의 아름다움이 담긴 조각, 그림 등을 끊임없이 사들였다. 야외 전시관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마을을 지키는 장승, 천진무구한 표정의 동자석, 해탈의 미소를 머금은 듯한 불상까지 다양한 종류의 석인들이 있다.

실내 전시관에는 석인을 비롯해 그림, 인형, 조각, 탈 등 여러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으며 우리 것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등 다양한 국가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 곳은 연극 공연이나, 영화 상영 등 다양한 예술 실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천장을 높이고 전시품에 바퀴를 달아서 공간확보를 용이하게 했다.

‘사람박물관-얼굴’에서 또 하나 독특한 것은 한쪽 끝에 자리잡고 있는 한옥. 전남 강진에서 도시 계획에 쫓겨 헐릴 위기에 있던 것으로 이곳으로 옮겨져 석인들을 내려다

보고 있다. 그래서인지 ‘돌을 보는 집’이라는 뜻의 ‘관석헌(觀石軒)’이라고 불린다.

사람이 그리운 人, 옛 사람을 만나고픈 人

“각종 매체를 가득 메우는 많은 사건, 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을 향한 애정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아닐까. 또, 문명의 급속한 발전을 문화가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상처를 주는 건 아닐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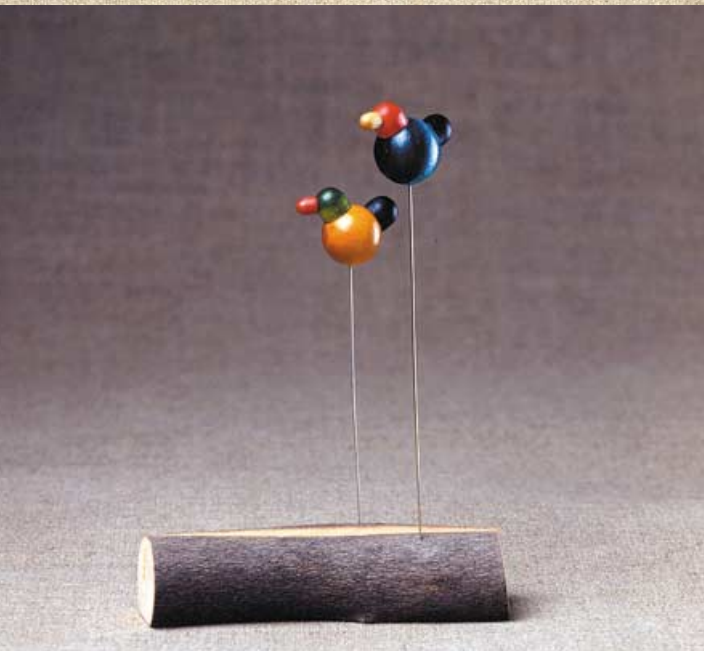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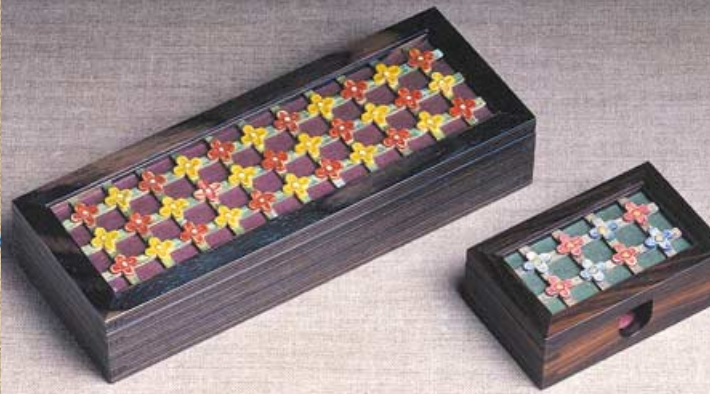
그는 이번 박물관 건립이 큰 힘이 되지 못할지라도 이 곳을 찾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잔잔한 파문을 불러 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일까 박물관 입구에는 이런 팻말이 있다.

‘사람이 싫으면, 이 문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사람이 그리운 사람,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사람, 자유롭고 인간적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이들이 모여서 서로를 감싸 안아주기를 바라는 것이리라.

관람문의|031.765.3522

취재 _ 윤선용 기자



소비자 만족

시켜야, 진짜 **장인** 아닌가요?

“날씨가 무척 덥죠.
아이들과 함께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먹고 갑시다.”
만나자마자 반가운 인사와
따뜻한 악수를 청하며 건네는 말.
다소 딱딱해 질 수도 있는 첫 만남이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씨에
오랜 친구를 만난 듯 하다.
‘시집가는 날’, ‘그리운 날’ 등 한국적 정서를
목칠공예에 담아내는
목조각가 김영민씨와의 첫 만남.

“명장도 마다하고... 참 이상한 사람이네”

“시대가 바뀌면서 한옥에서 아파트로 주거형태가 바뀌듯이 전통 공예인들도 이제는 자신들이 그 동안 만들어왔던 공예품을 고집하기보다는 아파트형 공예품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자기만족이 아닌 소비자 만족의 시대에 부합하는 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런 그의 생각을 두고 현실에 영합한다며 비난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전통, 민속 예술가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힘들어하는가를 생각한다면 이런 그의 생각과 노력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다.

최근 고양시에서는 그를 ‘명장’으로 추대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하지만 한사코 고사하는 그를 보면서 ‘참 이상한 사람이네. 다들 서로 명장이 되겠다며 추천서를 받아온다 어쩐다 야단인데...’ 라며 의구심에 찬 눈길을 보냈다고. 그는 자칫 명장, 명인과 같은 이름 뒤에서 그럴싸한 포장으로 자신의 작품을 미화함으로써 이를 접하는 일반 대중들이 전통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거짓된 모습이나 화려한 모습보다는 진실한 작품 그 자체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예술가의 고집이 한 몫 했으리라는 생각을 갖는 대목이다.

시골집방에서 나무 깎던 아버지 보며 자라

경기도 고양시 내유동에 자리잡고 있는 그의 공방은 생각보다 규모도 크고 정돈된 느낌이었다. 몇 개의 사무실, 전시관이 한 건물에 있고, 작업공간은 별도로 독립되어 있었다. 그리고 공방 곳곳에는 그의 작품들로 가득했다. 한 눈에 봐도 우리 것임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옷차림과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 인형들과 시계, 모빌 같은 다양한 소품들도 보였다.

그에게 있어서 목칠공예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이 맞을 듯 하다. 그의 집안은 40여년간 목칠공예를 해왔다. 시골집 방에서 온 종일 나무를 깎던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그였기에 따로 기술을 연마한다거나 공부를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눈으로, 손으로 체득되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선뜻 그 길을 걷기는 힘든 일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어 셋째 형님마저 나무 재료를 구하러 산에 오르셨다가 목숨을 잃게 되자 결국, 그는 다니던 대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가업을 이을 수 밖에 없었다.

나이 들어 공부... "힙합바지 입어볼까" 생각도

그는 무척이나 바쁘게 사는 사람이다. 네 아이의 아버지로, 목공예가로 학생으로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니 여느 연기자(?)에 못지 않다. 특히 올해로 2학년이 되는 한국 전통 문화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의 학생으로서의 역할은 그를 가장 들뜨게 한다.

"정말이지 몇 년만 장가를 일찍 갔어도... 라는 생각이 들만한 나이 어린 동기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참 색다른 경험이거든요. 아무리 공부해도 돌아서면 까맣게 잊어버려서 화도 나지만, 생각이 젊어지고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요즘은 힙합바지도 한번 입어볼까 생각중입니다." 목칠공예가 김영민이 힙합바지 입은 모습이 떠올라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온다.

지금은 웃으며 얘기하지만 지난해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기까지 무척 힘든 시간이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불안과 익숙한 현실을 벗어나는데 대한 두려움, 왜 그렇게 힘든 길로만 가냐고 자신을 유별나게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 하지만 그는 생활에 쫓겨서 또 자신의 재능만 믿고 현실에 안주하기를 거부했다. 특히 우리네 장인





들의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뛰어난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문적 체계와 이론 무장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키우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학교가 충남 부여에 있어서 주중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바람에 가족들과는 주말에만 만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되어서 위안을 삼는다. 하지만 부인 임진애씨는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한다며 안타까워한다.

김씨 가족이 바로 그가 찾던 '한국적 표정'

그의 공방이 위치한 고양시 공예사업협동화단지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예품들을 좋은 값을 받고 팔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작품을 싸쓸이하고 대금결제를 하지 않는 바람에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그 역시 벌써 몇 차례나 이런 일들을 겪었다. 금전적인 손해도 크지만 무엇보다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다고. 하지만 이런 와중에는 그는 “욕심이 많을수록 좌절의 폭이 크다는 걸 깨달았다”며 “내가 너무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는 요즘 학교에서 그 동안 쪽 자신이 해왔던 목공예 대신 도자기 공예를 배우고 있다.

“美는 나무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료의 변화를 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배우는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종래에 제가 해왔던 목칠공예에 접목해보고 싶습니다.”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그의 의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의 표정, 생각, 문화를 담아내서 한국을 대표하는 인형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의 소망도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취재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고 오는 길에 함께 손 흔들어 주던 김영민씨와 가족의 모습에서 그가 만들어 보고 싶었던 가장 한국적인 사람들의 표정과 생각을 만날 수 있었다.

취재 _ 윤선용 기자



당진에서 시베리아까지

21세기 정약용을 꿈꾸는 향토사학자 김추윤

이제 좀 쉬어갈 만도 한데
그는 몇 해 전부터
또 다른 엄청난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의 완성이라는
대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생태적 경계를 중심으로 한 향토문화 연구

향토사는 좁은 지역을 연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그렇지만 김추윤(신홍대 지적부동산학과) 교수를 만나면 생각이 달라진다.

“그 거대한 황하(黃河)도 거슬러 올라가면 작은 쪽샘에서 시작했듯이 세계의 역사도 거슬러 올라가면 한 지방의 향토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향토사觀이다. “기존의 많은 향토문화 연구들이 ‘행정구역’이라는 틀속에 갇혀 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합적 연구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인 만큼 물, 도로, 철도 등을 따라 만들어지는 ‘생태적 경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그의 생각은 충남 당진의 삽교천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최근의 경원선, 한탄강에 이르기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경원선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 머물지 않고 북한,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쳐 영국에 이르는 ‘철의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향토사 연구 30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

지리학에 대한 애정으로 교편을 잡고 시작된 그의 연구활동은 홍석표 신평중학교 교감을 만나면서 일대 전기를 맞게 된다. '지리는 공간의 학문이며, 역사는 시간의 학문'이라고 말하는 홍 교감과 의기투합. 당진 향토문화연구소를 설립하며 '향토'에 대한 애정을 키워나갔다.

20여편의 저서와 100여편의 논문 그리고 수많은 외부 기고. 지리와 향토사학을 아우르는 그의 연구인생은 올해로 30년을 맞는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고집에 가까운 그의 연구열정은 한국의 호수(대원사 1992년), 삼교천의 역사문화(당진문화원 1995년), 물의 문화(당진문화원 2001년), 경원선(의정부시 향토사연구회 2001년) 등 소중한 빛을 발하는 저서들로 결실을 맺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분야에 맨몸으로 부딪혀가며 만들어낸 것이기에 더욱 소중한 따름이다.

그의 저서 가운데 고려 및 조선시대 이래 내포지방(오늘날의 예산, 홍성, 태안, 당진 등)의 생명선으로 끈끈한 맥을 이어온 삼교천에 대한 향토문화의 궤적을 추적한 '삼교천의 역사문화'는 기존의 백제문화권 아래 감춰져 있던 내포 문화권에 대한 새로운 관찰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중환의 택리지에 나오는 유궁진의 정확

한 위치를 밝혀내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그대로 녹아있는 이 지역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바탕으로 최초의 삼교천 답사를 이뤄내며 이 같은 일을 가능케했다.

철도 따라 시베리아로 이어지는 '향토사' 연구

그간 출간된 많은 저서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책으로 '중국의 국토환경(1995년, 대륙문제연구소)'을 꼽은 김교수는 "원고 쓰는데 4년, 교정과 편집에 다시 1년이 걸렸다. 중간에 원고 쓰는 것이 너무 힘들어 중단하고 다락에 넣어둔 것도 3차례나 된다"며 당시의 기억을 떠올린다.

이제 좀 쉬어갈 만도 한데 그는 몇 해 전부터 또 다른 엄청난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의 완성이라는 대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물론 그가 직접 철로를 만들지는 않는다. 그 동안 우리들이 가졌던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러시아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철도를 따라 이어지며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현상들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은 반도국가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제대로 활용할



시베리아 횡단철도(Trans-Siberia Rail)

‘동토의 땅’으로 불리는 시베리아를 가로지르는 세계 최장의 철도(9288km). 동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태평양에, 서쪽으로는 모스크바를 거쳐 발틱해에 이른다. ‘시베리아횡단철도(이하 TSR)를 알면 러시아를 알고, 러시아를 이해하려면 TSR을 알아야 한다’는 말처럼 제정러시아, 소련연방을 거쳐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73개 정치역을 지나는 총 6박7일의 여정동안 러시아를 관통하는 TSR은 현재에도 매년 1억 5천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몽골횡단철도(TMGR), 만주횡단철도(TMR), 중국횡단철도(TCR) 등 국제선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경원선이 완전 복구될 경우 TSR과의 연결을 통해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 러시아를 거쳐 영국에 이르는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되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즉, 분단이라는 현실은 우리 나라를 섬이 아닌 섬나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종단철도가 연결되고, 또 이것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만난다면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묶는 철도를 매개로 한 거대한 연결고리의 시발점에 우리가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3번에 걸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답사한 그는 지난해 10월 강북구청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사진전’을 열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에 이르는 9,288km의 여정을 6박7일 동안이나 달려야 하는 이 여정에서 만난 많은 문화를 필름속에 담아낸 것. 그리고, 오는 9월경이면 그 간의 연구를 정리한 책을 펴낼 계획이다.

사진에도 일가견... “사람은 흔적을 남겨야...”

무려 5백여권의 저서를 남길 만큼 만물박사였던 다산 정약용을 가장 존경하는 김 교수는 요즘도 새벽 2시에 잠자리에 들며 매달 2000장에 가까운 원고를 집필하고, 틈날 때마다 현장답사를 통해 문화의 숨결을 직접 보고 느낀다.그도 어느새 ‘21세기 정약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들릴 때마다 ‘헌책방’이라고 부르다며 문을 열

어주는 연구실 역시 온통 책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한편 두권 사다보니 어느새 5000권에 가까운 책들이 모였지만, 그의 갈증은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는지 요즘도 매달 15만원이 넘는 돈이 책 구입비로 들어간다.

이제 건강 생각해서 집필·답사 등 연구활동을 좀 줄여야 겠다며 웃음 짓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내일 또 한탄강으로 답사 나가시잖아요?’ 라고 반문하고픈 생각도 들었다. 결혼 전 카메라를 선물해 김 교수의 어릴적 꿈을 되살렸던 부인이 지난해에는 백화점 문화센터에 자신 몰래 강의를 신청하는 물의(?)를 일으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는 ‘사진’도 그를 더욱 쉬지 못하게 만든다.

오며 가며 찍은 사진들로 최근 제1회 경기도 환경 사진전에서 청정부문 대상(폭포)과 환경오염부문 은상(가을의 흥터)을 수상할 정도다.

연구실 문 앞에 걸린 ‘인간은 어딜가든 흔적을 남겨라!’는 자신의 좌우명을 너무나 충실히 수행하는 김 교수의 모습이 오래도록 우리 곁에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취재 _ 윤선용 기자



우리 도깨비 맞아?

〈후달린 노인〉 이야기가 수록되면서 도깨비의 모습을 그려 넣어야 하는데, 그때 선정된 것이 바로 일본의 오니(おに)였다. 일본에서는 오니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뿔이 달리고 원시인 복장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철퇴를 들고 있다. 오니의 모습은 그 자체가 바로 요괴인 까닭에 무시무시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도깨비는 철퇴라는 무기가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씨름을 하자고 시비를 걸면서도 항상 씨름에 지는 캐릭터로 나온다. 만약 철퇴를 들고 있다면 싸움의 승패는 당연히 도깨비가 이겨야 맞다. 그러나 우리의 도깨비는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과 어울리려고 노력한다.

‘도깨비 혼돈 현상’ 일제가 자행한 것

도깨비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도깨비의 모습이나 성격 등이 과연 온전하게 한국적인 존재로서 인정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이것은 일제침략기를 거치면서 생겨난 오류이다. 물론 이런 역할이 일제가 주도적으로 자행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왜 그런 행위를 저질렀는가 하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과연 도깨비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인가. 그렇다면 도깨비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도깨비의 속성은 정확한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도깨비의 모습은 어디에서 본판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모습은 실상 일제침략기에 교과서에 수록된 ‘혹달린 영감’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이야기는 ‘혹부리영감’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일제가 이 민담에 주목한 이유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온 이야기이면서도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라는 점이다. 즉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양국에서 전승된 것을 근거로 하여 민족적 뿌리가 하나였다는 내선일체(內鮮一體)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혹부리영감’이 수록된 교과서는 소학교 2~4학년생의 ‘조선어독본’이었다. 즉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에 수록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마치 우리의 전래동화인 것처럼 만든 고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이야기가 과연 우리의 전통적인 설화인가 하는 점이다.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늙은 노인이다. 혹이 달린 노인을 등장시켰다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이야기의 주제와도 걸맞지 않은 대목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민담의 주제는 권선징악을 내세우면서 충효사상을 강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특히 충효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을 젊은이로 내세워야 한다. 즉 부모를 봉양하는 젊은 남성을 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단순한 이야기일 경우 이런 주인공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그런 점에서 ‘혹부리영감’ 보다는 ‘도깨비방망이 얻기’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우리의 전통적인 이야기라고 할 만하다.

‘혹부리 영감’ 이야기는 일제의 문화정치 일환

‘혹달린 노인’ 이야기가 수록되면서 도깨비의 모습을 그려 넣어야 하는데, 그때 선정된 것이 바로 일본의 오니(おに)였다. 일본에서는 오니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뿔이 달리고 원시인 복장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철퇴를 들고 있

다. 오니의 모습은 그 자체가 바로 요괴인 까닭에 무시무시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도깨비는 철퇴라는 무기가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씨름을 하자고 시비를 걸면서도 항상 씨름에 지는 캐릭터로 나온다. 만약 철퇴를 들고 있다면 싸움의 승패는 당연히 도깨비가 이겨야 맞다. 그러나 우리의 도깨비는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과 어울리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교과서에 수록된 도깨비의 모습은 1923년에는 애매하지만 1933년에 와서는 어느 정도 형상화를 갖추고 있다. 다만 뿔이 난 모습이나 원시인 복장을 한 것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변화의 틀은 아마도 오니를 그대로 도깨비라고 그린다는 것이 어색하다는 것을 일제 통치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머리에 난 뿔 2개는 일본의 오니이고, 뿔 하나는 도깨비라는 정체모를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오니의 속성을 모르고 한 말이다. 오니도 역시 뿔이 하나인 경우도 있고, 둘인 경우도 있다. 여하튼 이런 주장들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을 설득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를 보면 도깨비의 모습이라고 그려진 대부분의 형상이 뿔 하나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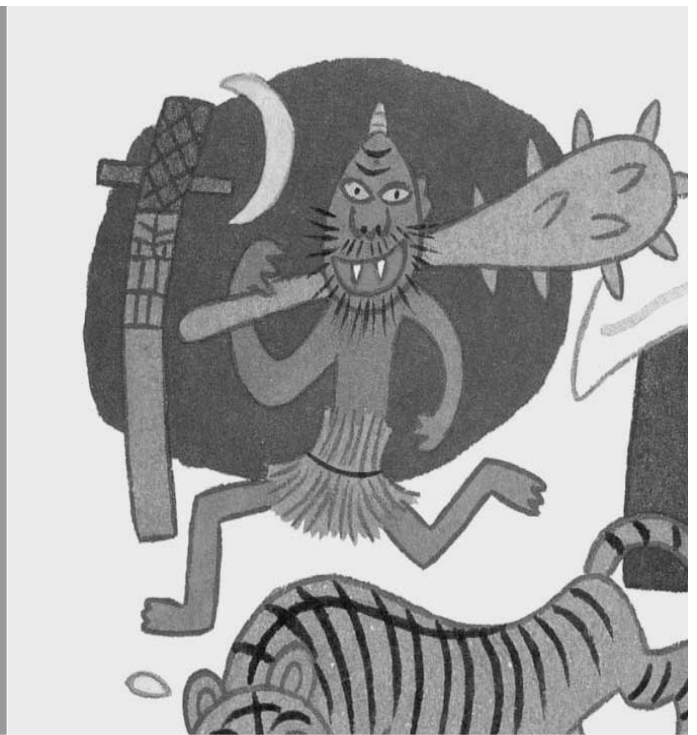
福 가져다 주고 命 길게 하는 우리의 도깨비

우리의 도깨비는 일본의 오니처럼 요괴가 아니다. 15세기 문헌인 ‘월인석보’나 ‘석보상절’을 보면 도깨비는 개인들의 치성대상인 신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즉 복을 가져다주고, 명을 길게 연장시키는 능력을 지닌 신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내려오면서 도깨비는 자기의 원래 기능보다도 더 많은 다양한 기능을 부여받게 된다. 예컨대 병을 옮기는 역신(疫神)이거나 화재를 일으키는 도깨비불 등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요괴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다양한 요괴가 존재했다면 도깨비도 자신의 정체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요괴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존재를 표현하는데도 인색했다.

이제 도깨비의 모습을 찾아주려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캐릭터로 만드는 작업이나 도깨비를 주인공으로 한 시나리오의 개발 등을 통해서 도깨비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작업들의 열매가 맺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동화책 속 삼화



교과서 속의 도깨비



오니이야기 삽화



일본 동화책 속 오니



흑뎨 이야기



글·사진 _ 김중대

중앙대학교 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장. 저서로는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한국 도깨비의 연구', '한국의 학교괴담' 등과 동화로는 '깨비 깨비 참도깨비', '열두 달 풍속놀이' 등이 있다.
(5852@hanmail.net)

의 무당을 일컬었던 말로 풀이하고 있다.

왕 | 임금에 관한 기록은 그 자체로서 역사이자 사료적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원래 임금이란 신으로부터,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과 백성을 보호하는 통치력을 부여받은 존재이므로, 그는 절대적 신성(神聖)과 함께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이름 속에 등장하는 ‘왕(王)’자는 그 당시 임금의 행적을 나타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가적 위기나 나라의 정세 등을 나타내고 암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뜻에서 ‘왕’ 관련 지명은 역사연구의 훌륭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서울 · 경기 지역

왕좌봉(王坐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578번지에 있는 작은 봉우리이다. 이곳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서울에 도읍지를 정할 때 무학대사를 데리고 이곳에 올라와 봉우리에 앉아서 이 일대를 내려다보며 지형을 살폈던 곳이라고 한다. 일설에는 임금이 이곳에 올라서 마장동(馬場洞)의 말 기르는 것을 살펴보고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왕숙천(王宿川)과 팔야리(八夜里) | 왕숙천은 경기도 포천군에서 발원하여 남양주시, 구리시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며, 팔야리는 남양주시 진접읍의 왕숙천 가에 있는 마을이다. 1402년 왕자의 난으로 마을이 상해서 함흥으로 내려갔던 이태조가 1406년 서울로 돌아오다가 이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떠난 지 여덟 밤이 되었으므로 팔야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 왕숙천도 이때 이태조가 잠을 자고 갔기 때문에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¹⁾ 그런데 구리시의 왕숙천 가에 동구릉(東九陵)이 있어서 여러 임금이 영원한 잠을 자고 있으니 ‘왕숙천’이라는 이름과 맞아떨어지고 있다.

왕대리(旺埜里)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은 본래 ‘왕터’라고 부르던 곳으로서 마을 이름에 ‘왕(王)’자를 피하는 경향에 따라 ‘임금 왕(王)자를 ‘왕성할 왕(旺)’자로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1388년(고려 우왕 14) 왕이 이성계에게 쫓기어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 후 1394년(태조 3) 4월에 피살되었다. 왕이 머물렀던 곳이므로 왕터라 하는데, 이곳에 세종 임금을 모신 영릉(英陵)과 효종 임금을 모신 영릉(寧陵)이 자리잡고 있으니 ‘왕터’라는 이름이 참으로 명불허전(名不虛傳)인 것이다.

강원 · 충청지역

왕류동(王溜洞)²⁾과 태기산(泰岐山) | 왕류동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에 있는 마을이며, 태기산은 봉평과 횡성군 갑천면(甲川面) 경계에 있는 산



1) 팔야리의 ‘야(夜)’는 국어학에서 전답을 나타내던 ‘배미’를 표기하던 글자이다. 왕숙천은 본래 왕산내, 왕수내라고도 불렀던 하천이다.

2) 왕류동은 왕률(王栗)이라고도 한다.

(1,261m)이다. 삼한시대에 진한의 태기왕이 신라의 박혁거세 군대에게 쫓겨 성을 쌓고 머무른 곳이 태기산이다. 또 왕류동은 글자 그대로 태기왕이 잠시 머물렀던 곳이요, 황성군의 갑천은 태기왕의 군사들이 갑옷을 씻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먼우리 마을도 원래 태기왕의 군대가 멸망하였다하여 ‘멸온’이라 불렀던 곳이라고 한다. 역사에는 한 줄도 적혀있지 않은 임금의 행적이 지명 속에 자세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왕래원터(王來院-) |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官基里)에 있는 터이다. 관기리는 조선시대 관리들의 숙소인 왕래원이 있어서 관터 - 관기리가 된 곳이다. 왕래원은 글자 그대로 왕이 다녀간 곳이라는 뜻인데, 고려 제 31대 공민왕(恭愍王) 때 홍건적(紅巾賊)이 침입하자 왕이 안동으로 피난하였다가 상주(尙州)를 거쳐 청주(淸州)로 가는 길에 이곳에서 잠시 머물렀으므로 ‘왕래원’이라 부르게 되었다. 공민왕이 홍건적을 피해서 내려온 행적은 곳곳에 여러 지명들이 남아서 그 때의 정황을 전해주고 있다.

왕우래(王又來)와 왕우물 | 왕우래는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지경리에 있는 마을이며, 왕우물은 이곳에 있었던 옛 우물이다. 지경리(地境里)는 그전에 노성과 공주교울의 경계가 지나던 곳이므로 지경리라 한다. 477년(백제 문주왕 4) 9월 왕이 이곳에 사냥을 나왔다가 자고 가게 되었는데, 이때 좌평 해구(解仇)가 임금을 살해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원통하게 여기어 왕이 다시 오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왕우래’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 있었던 왕우물은 그 당시 문주왕이 마시던 우물이므로 왕우물이라고 하며, 신하에게 피살된 백제 문주왕의 시해사건을 지명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전라 · 제주 지역

왕정이(王亭里) |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에 있는 마을이며, 인근의 신원리에는 최양묘가 있다. 조선조 태종이 대흥리에 사는 최양을 예로써 초빙하였으므로 이곳을 왕정리라 부르게 되었다. 최 양은 고려말의 충신 정몽주의 조카이자 고려 대장군 칠석(七夕)의 아들로서 대제학까지 오른 인물인데, 태종이 그를 중용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사양하고 낙향하여 살았다. 옛 조정의 신하를 아

끼는 태종의 아량과 또 끝까지 절의를 지키는 신하의 훈훈한 인정이 지명 속에 녹아 있는 것이다.

왕무덤산 | 전라북도 익산시 석왕동에 있는 산이다. 이 산에 익산쌍릉이라고 부르는 백제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능이 있으므로 이곳을 왕무덤산이라고 부른다. 익산 쌍릉은 말통대왕릉, 기준릉, 왕묘 등으로도 부르는데, 1329년(고려 충숙왕 16)에 도굴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익산 쌍릉의 주위에는 마한의 도읍지를 암시하는 왕궁면과 왕궁리(王宮里), 옛 금마의 유적지인 동고도리(東古都里)와 서고도리, 위만조선의 끝 왕 기준이 피난하였다는 기준성 등 술한 유적들이 남아있다.

왕산(王山)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고이도에 있는 산이다. 고이도에는 고이산성이 있으며, 909년(신라 효공왕 13) 6월 왕건이 군사 2,500명을 이끌고 진도군을 공략하여 고이도에 이르렀는데, 이 성안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싸우지 않고 왕건에게 항복하였다. 왕산은 그 후 왕건의 군사들이 이 산에 주둔하였으므로 왕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왕건의 군대가 서남해안을 장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고이도의 ‘고이(古耳)’는 전라도 방언에서 고양이를 말하며, 이 지역은 조선시대에 나라에서 말을 기르던 목마장(牧馬場)이었다.

왕자묘(王子墓) |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의 가장 북쪽에 있는 묘이다. 이곳에 큰 무덤 셋이 있는데 옛날 탐라국 왕자의 무덤으로 전해지고 있다. 탐라국의 역사에 관해서는 고을나, 부을나, 양을나의 세 신인에 관한 설화가 대부분이므로 탐라국 왕자의 묘로 전해지는 유적의 존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경상지역

왕피천(王避川)과 핏골 |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왕피리 통고산에서 흘러내리는 하천이 왕피천이며, 부근에 핏골과 안일왕산(安逸王山), 임왕기(臨王基) 등의 땅이름이 있다.³⁾ 삼한시대에 실직국(悉直國)의 안일왕이 파조국(波朝國)을 쳐서 병합하고 예맥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이 산(안일왕산)으로 피난하였다고 한다. 왕피리와 왕피천이라는 이름도 안일왕이 피난한 지역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며, 안

일왕이 머물렀다는 임왕기, 안일왕의 군사들이 주둔했다는 병위동(兵衛洞), 군량을 저장했다는 거리곡 등의 이름이 남아있다. 또 핏골은 노곡(虜谷)이라고 하는데, 피난 온 왕이 이곳에서 적군에게 포로(捕虜)로 잡혔기 때문이다. 울진군 서면 일대에는 실직국 안일왕에 얽힌 이야기가 곳곳에 지명으로 남아 있어서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실(史實)들을 지명이 증언해 주고 있다.

왕산(王山) |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과 동변동 뒤에 있는 산이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을 맞이하여 싸울 때 왕건이 이 산 위에서 군사를 지휘 하였으므로 왕산이라 한다. 이 싸움에서는 왕건이 크게 패하여 팔공산을 넘어서 도망하였으며, 그때 왕건의 군대가 주둔했다는 둔산동(屯山洞), 왕건이 혼자 쉬었다는 독좌암(獨坐岩), 패한 군사들이 울었다는 서름재와 파군재, 군사들이 왕건을 잃어버렸다는 실왕리(失王里 : 시랭이), 후백제 견훤의 군사들이 매복해 있었다는 복현동(伏賢洞) 등의 이름이 남아있다. 마치 당시의 전쟁과 전술을 그대로 보여 주듯이 지명들이 그때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다.

왕머리와 왕의산(王衣山) | 왕머리는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에 있는 마을로서 왕류동(王留洞)이라고도 부른다. 또 왕의산은 문경시 산북면과 예천군 용궁면 경계에 있는 산이다. 고려 제 31대 공민왕 때 홍건적이 침입하여 개경을 함락시켰는데, 이때 왕이 난리를 피하여 안동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곳에서 잠시 머물렀으므로 이 마을을 왕머리 또는 왕류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왕의산도 역시 공민왕이 복주(안동)로 피난을 갈 때 이 산에 올라서 옷을 벗고 땀을 식혔으므로 왕의산이라 부른다고 한다. 앞에 소개한 충북 보은의 왕래원터가 공민왕의 귀경길에 머물렀던 곳이라면, 이 두 곳은 임금이 피난을 내려올 때 머무른 곳이다. 따라서 공민왕과 관련된 지명만으로도 그의 피난과 환궁 행차를 지도에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왕티터와 왕산(王山)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에 왕티터⁴⁾가 있고 화계리의 뒷산을 왕산이라 부른다. 왕산은 이 산 기슭에 가락국의 마지막 임금인 구형왕(仇衡王)의 능이 있어서 왕산이라 하며, 왕티터도 같은 연유로 생긴 이름이다. 구형왕은 양왕(讓王)이라고도 부른다. 1789년(정조 22) 산청군 좌수 민경원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돌아가는 길에 왕대암에 들러서 잠시 쉬다가 절 안의 시령 위에 있는 낡은 궤짝을 보게 되었다. 궤짝 위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서 중에게 그 사유를 물어보니 “예로부터 누구든지 그 궤짝에 손을 대면 큰 벌을 받는다 하여 그대로 모시고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호기심이 동하여 중의 만류를 뿌리치고 궤짝을 열어보았더니 기우제를 지내는 큰 무덤이 바로 가락국 마지막 임금인 구형왕능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이 능은 김해 김씨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왕’ 자가 들어가는 지명은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다.

- 3) 안일왕산은 현지에서 매일왕산, 매일왕재라고도 부르며, 임왕기는 임광기 또는 임광터라고도 한다.
- 4) 왕티터는 왕대암(王臺庵)터라고도 부르며 구형왕릉을 지키던 절터로 보고 있다.



Interview | 이 글을 쓴 김기빈은...

“지명은 단순히 지도 위에 새겨진 활자이거나, 땅 껍질에 대한 명명(命名)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의 말과 열,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소중한 문화재인 거죠.”
 공무원 출신인 김씨는 1980년 처음 국립지리원(현 국토지리정보원) 지도과에 사무관으로 발령 받으면서 지명에 매료되기 시작하였다. 지명을 연구하며 이 나라 산천을 돌아다니지도 올해로 벌써 25년째. 1982년에는 살고 있던 정릉 집을 팔아 ‘고흥지명유래’ 책자를 자비로 출판했고, 1984년에는 한국명어학회 창설을 주도했다. 광복 50주년(1995)을 맞이해서는 ‘일제에 빼앗긴 땅이름을 찾아서’를 출간하는 등 일제 때 훼손된 지명을 바로잡는데 앞장 섰다.
 때로는 간첩으로, 혹은 산업스파이로 오인 받으면서 불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는 공직을 퇴직한 지금도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지명조사와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개발지역에 대한 지명조사와 함께 북한 지역을 포함한 남북한 통합 지명사전 편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지명연구위원, 중앙지명위원회 위원.

회의도 경쟁력이다 vol_6

표결(表決) 방법

표결의 종류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찬성/반대수를 다 묻는 방법

의장이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표결했을 때 이의가 있으면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을 철회하고 보다 더 명확한 표결방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고 거수나 기립에 의한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다.

국회에서는 다수가 모인 본회의에서의 거수 표결방법을 배제하고 있다. 총회와 본회의의 유사성을 감안한다면 문화원 총회에서도 거수는 불명확한 의사표현 방법이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방법은 회원 누구나 자신의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안건에 대한 의사(意思)를 명확히 표현하는 방법이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회원들의 동의나 재청을 거치지 않고 의장이 직권으로 채택해도 하자가 없는 표결방법이다.

그러나 표결을 선포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토론 절차를 여유 있게 거치고 회원의 동의에 의하여 토론의 종결과 표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민주적인 회의진행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국회에서는 인사에 관한 문제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로 정착되어 있다.

●●●찬성수를 묻는 방법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서 쓰는 방법처럼 찬성수만 물어서 찬성수가 의결요건에 달하면 채택하는 방법인데 문화원 총회에서는 어떤 동의안에 찬성하는 숫자가 반대하는 숫자보다 현저히 적다고 판단할 때 사용하면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반대 및 기권수를 묻는 방법

찬성하지 않는 경우는 반대 및 기권에 해당되는데 극소수가 찬성하지 않고 의사진행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먼저 반대 및 기권을 묻고 그 외는 찬성으로 간주해도 이의가 없겠느냐고 절차를 밟아서 찬성수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주총회에서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인정받아 정착되고 있는 표결방법이다. 단지, 반대 및 기권 외는 찬성으로 간주해도 좋으냐고 물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다수의 회원이 있다면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찬성/반대를 다 묻는 방법으로 표결방법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극소수가 계속 반대를 한다면 회원 전체에게 이 방법을 써도 좋은지를 물어 다수가 찬성하면 이 방법으로 표결을 진행하면 된다. 다수가 모인 회의장에서는 거수의 방법이 불명확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회원이 찬성할 것이 판단되므로 반대 및 기권을 묻는 표결방식을 채택하는 데 대하여 전체의 의사를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물으면 소수의 의사진행 방해로 차단할 수 있다.

표결의 선포와 발언권 행사 금지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 선포한 후에 의장은 회원들에게 표결방법을 물어 결정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나 찬성/반대를 다 묻는 정식의 서면표결이 준비되어 있다면 바로 정식 서면표결에 부치면 된다. 또 총회후 법률적인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표결방법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정식의 찬반 서면표결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

의결권수의 확정 방법

● 성원보고 당시의 의결권수는 그 시간 현재의 의결권수이고 표결이 있을 경우는 표결선포시간 현재의 의결권수나 투표에 참가한 숫자를 총의결권수로 재확정해야 한다. 전회에서도 기술한 바 있지만 의결권수 확정은 절차가 복잡하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 표결선포시간 현재의 의결권수를 재확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사전에 총출석 의결권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접수처와 출입구에서 총회후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을 가산하고 퇴장하는 회원의 의결권을 감산하는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정확히 해야 한다.

이때는 단순히 회원입이 확인되면 입장을 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참석증 또는 참석확인증을 교부하여 귀가시에는 그 참석증을 회수하여 출석회원수를 가감하고 공정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이 방법으로 의결권수를 확정하다 보면 실질상으로는

100% 정확한 출결관리가 되지 않아 표결결과 그 숫자가 다소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라면 무시해도 되지만 영향을 미칠 만큼의 수가 된다면 중요한 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쟁점이 있는 총회에서는 이 문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출석의결권수가 확정되어 의장에게 보고된 이후에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이는 어디까지나 회의의 진행상의 문제이고 회원의 권리는 보장이 되어야 하므로 투표 마감 시간까지 표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경우 의장에게 다시 보고하여 표결결과 발표시에 정정발표를 하면 된다.

●●● 투표에 참가한 수를 의결권수로 재확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표결을 마감한다는 선포가 있는 때, 즉 투표함이 폐쇄되는 시간까지는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찬성/반대/무효표와 투표용지에 “기권”이라고 쓴 표까지 모두 총출석의결권수에 넣어야 한다. 계표과정에서도 똑같이 분류한다.

회의장 내에 있으면서 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회원의 의결권 처리

투표에 참가한 수를 출석의결권수로 확정하는 방법을 쓰면 사표가 방지된다. 따라서 회의장 내에 있으면서 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회원은 출석의결권수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되고 그 수는 분모(分母)에서 제외된다.

표결선포시간 현재로 의결권수를 확정하는 방법을 쓰면 회의장 내에 있으면서 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회원은 기권에 해당되어 결과적으로 반대한 경우가 되고 그 수는 분모(分母)에 포함된다.

의사변경의 금지

회원은 표결을 한 후에는 그 의사(意思)를 변경할 수 없다.



자문 _ 김점동 | 동우에쓰엔시 대표

16개 지방문화원 선정해 집중 지원 예정

지난 5월 25일 문화관광부의 국무회의 보고내용은 인력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를 통한 지역의 문화적 활력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진흥의 구심체로 육성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을 조성 및 운영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을 통한 기초마을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는 등의 실생활과 밀접된 운동 또한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우선 **우선 인력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중 전문직이 없는 101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직원을 채용하고, 전공학생 등의 전문보조인력의 인턴제 도입을 지원하며 문화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재교육 실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문예회관 등의 지역문화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규모 자생적 문예단체 구성 지원을 통해 유휴문화공간 활용 및 지역활력을 증대시키고 문화시설 간 네트워크화를 통해 우수프로그램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를 통한 지역의 문화적 활력 제고를 위해서 32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예술단체, 문

화기반시설, 대학 등의 교육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전국 문화기반 시설의 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확대, 지역별·연령별·계층별로 특화된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민·관·학 연계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체계를 정립을 위해서는 지역문화 인재 양성체제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문화계에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지방대학 내에 전문교육과정을 신설 및 조정할 계획이며 **지방대학 내에 컨설팅팀을 운영하고 지역축제 육성, 문화관광자원 개발 등 지방대학의 지역문화 컨설팅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직접 결합하여 지역이 주체가 되는 지역문화 활성화대책으로는 우선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진흥의 구심체로 육성하기 위해 신규전문인력의 공개채용 등 지방문화원 운영체제를 혁신하고 향토문화 발굴 등 지역문화단체 및 시설을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우수 문화원을 선정, 예산·인력·프로그램 등을 대폭 지원하도록 해 경쟁을 유도할 계획인데 매년 16개 문화원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밀집지역에 소규모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쇼핑센터, 지하철역 광장 등 주민왕래가 잦은 지역의 문화공간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을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 노령화, FTA체결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기초단위 마을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을 통한 기초마을 살리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인데, 문화역사적 소재를 통한 경관개선 및 운영프로그램을 시행, 2004년에 문화역사마을 3개소, 아름다운 우리마을 3개소를 선정한 뒤 2005년 이후에는 매년 문화역사마을 9개소, 아름다운 우리마을 9개소씩을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는 통합복권 수익금, 외국인대상 출국납부금의 추가 부과, 확대조정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부 투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2% 수준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부문 투입비율을 4%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유도하고 기타 안정적인 신규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문화산업 분야의 수도권 집중률이 90%를 넘고, 기존 지역 문화시설 인프라 또한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절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다가올 외부적 환경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표된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문화가 명실상부하게 활성화됨으로써 자율·참여·분권의 정책기조가 더욱 꽃피워나갈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특성화 문화발굴·육성을 위한 대토론회

지역특성화 문화 발굴·육성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5월 18일 오후 3시 제주 시 오리엔탈 호텔 2층 연회장에서 열렸다. 전국 순회토론회의 일환으로 제주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에 바탕을 둔 지역 특유의 문화를 발굴하고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향토문화의 진흥 방안을 모

색하고자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권용태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한 문화관계자와 2백여명의 제주시민 및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지회의 양중혜 지회장의 개회사로 막을 올렸다.

대토론회에서 발제자인 한국문화관광정

책연구원의 이원태 연구위원은 '문화분권 실현방안'으로 지역문화발전위원회 설치, 문화환경영향평가제 도입, 문화전문직제도 도입, CEO·예술감독 등 전문인력의 임용확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예산 5%이상 편성의무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제주문화원 **홍순만** 원장은 '제주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담은 축제개발방안'이라는 주제에서 제주도의 가옥, 취락, 돌담, 골목, 꼬부랑길, 숲 등 이질적 풍토가 모두 바람이 만들어 낸 제주문화의 현상이라고 말하고 수난을 거듭한 역사와 조선시대 풍속문화를 고찰하면서 탐라문화제 서막행사처럼 현대문화행사로 둔갑해 버려서는 제주의 고유문화나 전통성은 퇴색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관중과 어우러지는 공연, 광장의 문화제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대 **장성수** 교수는 '제주관광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문화발굴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제주는 옛 삼다(三多)의 이미지 강화를 문화관광 육성의 기조로 삼아 그와 연관된 문화원형을 체계적으로 조성·발굴해 나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북제주문화원 **김찬흠** 원장은 '지역문화 교육사업의 특성화 방안'에서 고려시대 삼별초 관련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각종 세미나 자료를 학생 교육용으로 구성, 재조명함으로써 역사 인식을 고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방문화원의 업무 원활화를 위해 '문화원운영 지침서'나 '문화원 편람'의 발간 보급과 함께 놓어준 소재 문화원에 대한 특별지원

을 건의하였다.

토론에 나선 서귀포문화원 **김계담** 원장은 문화가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요 인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계의 일원화가 요구되며 민간부문 지원·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행정의 관 주도 완화를 펼쳐나가야 할 것과 정부 문화정책 추진시 지역 특수성이 우선 고려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총 제주도지부 **정인수** 전 지부장은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제주도문예진흥위원회에 위촉된지 2년이 넘었으나 1년에 한번 모이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정책담당자의 문화마인드가 바뀌지 않고서는 위원회 설치 자체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였다. 역사학자 **박찬식** 선생(제주대 강사)은 고대 탐라국의 독립 경험을 깊이 내면화하고 있는 제주인들은 11세기 이후 고려와 조선왕조의 강력한 구심력에 이끌려 중앙에 대한 순응과 더불어 반발하는 사례도 빈발해 온 것처럼 순응과 저항의 역사에서 제주인의 심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JIBS 제주방송 **송정일** 편성제작국장은 제주문화의 중심 이미지는 바람이라고 역설하면서 바람이 만들어 낸 제주 선인들의 신화와 전설을 현대적 가치로 재창



이원태



홍순만



장성수



김찬흠



출해 내어야 하며 이를 활용한 문화컨텐츠 개발을 강조했다.

남제주문화원 **한공익** 원장은 문화축제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수정 보완을 해감으로써 연륜이 쌓일 수록 하나의 축제로 자리잡게 된다고 말하면서 섬문화축제에서처럼 처음부터 대형화 구상에서 착오가 일어났고 전통문화 분야의 미흡과 수요자들에 대한 과대한 기대심리의 유발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민속학자 **좌해경** 박사는 전통문화의 중요성은 외치면서도 대학에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곳이 하나도 없으며 제주 방언은 젊은이들에게 제2외국어로 들려서 선조들의 삶이 이방인의 행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부터라도 뿌리를 알고 우리의 것을 후손들에게 대물림하는 일에 최선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필가인 **조명철** 전 제주시교육장은 향몽·향일·돌·들불은 제주인의 공유문화로서 제주지역 4개 문화원이 공동으로 특성화 사업안을 만들어 관계당국과 논의를 거쳐 교육에 반영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신화와 전설, 세시풍속 등을 특성화하여 국제관광의 메카로 창조해 나가야 된다고 말하였다.

제주대 **조영배** 교수는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은 단일 문화권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북제주군은 제주문화권과 추자도의 남도문화권으로 두개의 문화권이 존재하고 있다”며 “또한 추자도는 남도(호남)문화권이기에 때문에 논외로 치부되어 왔는 바 멸치후리기와 상여소리 등 매우 뛰어난 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어 본도(本島)와 추자도의 남도문화가 서로 어울리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적 에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연찬회에서 이성무·백기완씨 등 특강

지난 5월 19일 제주 서귀포 칼호텔에서 열린 전국문화원장 연찬회에서는 이성무 전 국사편찬위원장과 민주화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백기완 선생(현 '노나메기' 발행인)의 특강과 함께 광영진 문화관광부 예술국장으로부터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무 전 국편위 위원장은 역사는 항상 반복되어 오고 있음을 조선 근대사를 예로 들며 조목 조목 설명했다. 그리고 한마디로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되 올바르게 잘 사는 세상'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백 선생의 주장이다.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 정서인 '이심이 이야기'를 비롯해서 노나메기 강좌 등 우리 것을 되 찾는 일에 평생을 바쳐온 까닭에 대중 앞에 서면 전하고 싶은 말도 참 많다. 그리고 한편 이 연찬회에서 광국장은 향후 문화원이 지방문화원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요약 정리한다.(편집자)



[특강]

사문난적 취급 당한 조선후기의 실학파

이성무|전 국사편찬위원장

조선 후기의 역사와 문화는 우암 송시열의 북벌론과 주자학 지상주의로 대변된다.

송시열은 임진왜란 때 재조번방(再造藩邦)의 은혜를 베푼 명나라를 멸망시킨 원수를 갚고 병자호란 때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한 부끄러움을 씻기 위해 청나라를 쳐야 한다는 북벌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존명사대(尊明事大)는 비단 임진란 때 명나라가 도와 준 은혜에 보답하는 것 뿐 아니라 태조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의 명분이요 인조반정의 명분이기도 했다. 그러한 명나라가 없어진 마당에 우리가 중국 중심세계관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송시열의 북벌론은 하나의 국시(國是)이기도 했다. 국가는 존명사대를 근거로 북벌론을 국시로 내걸었고,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 죽거나 잡혀간 가족들을 위해 복수설치의 기치아래 모여들었다. 그러나 같은 북벌론이라도 효종의 북벌론은 북벌운동을 통한 양병으로 왕권을 강화하려 했고, 송시열은 양민(養民)을 내세워 노론집권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따라서 북벌은 가당치도 않았다. 2백만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청나라를 상대로 겨우 10만 양병을 해서 겨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집권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송시열의 이념은 병자호란 당시 척화파의 대표격인 청음 김상헌에게서 이어받았으며 효종의 북벌운동은 이들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 주었다. 송시열은 김장생을 비롯한 호서사림(湖西士林)의 이념적 지지와 안동김씨를 비롯한 노론세력의 지지를 받아 노론정국을 주도할 수 있었다. 또한 조선 후기의 정치는 이들 노론세력과 남인·소론과의 싸움으로 일관되었다.

그리고 송시열은 문화적으로 퇴계와 율곡 등이 확립한 조선적 주자학을 국가사회를 운영하는 유일무이한 이념으로 계승하여 이를 현실 정치에 실현시켜 나갔다. 따라서 주자학에 어긋나는 다른 사람들은 이단으로 몰아붙였으며 불교, 도교, 무속은 말할 것도 없고 양명학과 같이 같은 유학이라도 주자학이 아니면 철저히 배격하였다.

주자학 지상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소론의 양명학(후에 강화학파), 남인의 서학(西學), 노론 소이세력의 북학 등 실학이 대두하였으나 조선 후기의 실학은 주자학 지상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단이나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배격될 뿐이었다. 안동김씨계가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하여 북학론 등 다른 사상을 유연하게 받아들여 세도정치시대를 열기는 했으나 권력독점으로 인한 경직성 때문에 국운은 쇠약해져 갔다. 대원군이 뒤늦게 이를 바로잡아보려고 했지만 만시지탄이 되고 말았다.



이성무

[특강]

기와집이란 말은 있어도 한옥이란 말은 없어요

백기완|노나메기 발행인

제주공항에 내려서 서귀포까지 오는데 자연경관은 참 아름다우나 주변 건물들은 하나같이 눈에 거슬렸어요.

옛날에는 초가집을 이엉집이라고 했지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한복이라고들 말하는데 그냥 ‘옷’입니다. 여러분이 입은 것과 비교해서 부를 때 ‘우리 것’이라고 하면 되지요. 또 기와집이라는 말은 있어도 한옥이라는 말은 없는데도 언론 방송에서 한복이니 한옥이라고 쓰고 있어요. 어쨌든 옛날 기와집은 그 새깔이 우리 눈하고 조화를 이루었어요. 안동에



백기완

있는 도산서원을 가 보아도 우리의 기와 집이나 이영집은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데 여기 오면서 내 눈에 비치는 집들은 한결같이 새깁부터가 맞지않아요.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호텔건물도 주인이 들으면 기분나쁘겠지만 아름다운 제주의 풍광을 해치는 건물입니다. '달동네'라는 말을 내가 만들었다면 어폐가 있겠지만 쓰기는 제일 먼저 썼습니다. 1953년 1월 한국전쟁이 끝나기 전인데 서울역 앞 대우건물 뒤에 도동이 있습니다. 비록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눈이 내린 어느 겨울 밤인데 달빛이 비치니까 그 동네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전재고아들을 몇 명 데리고 한글을 가르치면서 '달동네 소식'이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돌린 일이 있지요. 얼마 후에 경찰서로 불려서 가니까 담당 경찰관이 '하교방 촌이지 달동네가 뭐야' 라고 해서 내가 '하교방 촌은 왜말 아닙니까?' 했더니 '이 자식이 왜말 싫어하는 것 보니까 빨갱이가 틀림없다고 한 1주일간을 구류생활하면서 많은 매를 맞은 일이 있지요. 그런데 요즘은 제도권 언론들도 달동네라고 합니다.

우리 말과 관계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1970년대 초에 남산터널공사할 때입니다. 터널이라는 말이 영 귀에 거슬려요. 그래서 신문사에 전화를 해서 제발 터널이라고 하지 말고 '맞뚜레' 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의했더니 좋은 생각인데 청와대 쪽에 얘기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받는 직원이 '맞뚜레'라는 뜻이 뭐냐고 물기에 바닷가에 가면 계구멍이나 낙찌구멍이 서로 맞뿔려 있는 것을 '맞뚜레'라고 설명했더니 참 뜻이 좋으면서 며칠 후에 다시 전화해 달라고 해서 그 뒤에 전화를 했더니 뜻밖에도 '맞뚜레'라는 말은 조국근대화 정신에 맞지 않아서 못 쓰겠다는 것이네요.

그래 내가 전화통에 대고 '미국말 꺾다 쓰는 것도 조국근대화냐'고 했더니 당신 누구냐고 물어 '내 목소리 듣고 날 몰래! 내가 백 아무개라는 사람이야' 그 후 나는 남산에 있는 어떤 지하실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았지요. 맞뚜레라는 말이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인데 '터널'이란 용어에 비하면 얼마나 함축미가 있습니까?



곽영진

금년 중 제도 마련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곽영진문화관광부 예술국장

지난 1월 27일에 예술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와서 보니까 지방문화 육성을 위해 지난 1년동안 우리 문광부 내에 외부 민간인을 포함한 지역문화발전 테스크 포스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문화가 발전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불씨를 붙여서 살려 나갈 것인지 이런 고민을 담아 그 해결책을 찾는 단계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일부터 고속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 초에 대통령께서 고속철도 개통이 지역문화

발전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했고 머지 않아 보고를 드려서 힘을 받아 지역문화 쪽에 많은 출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새 예술정책 마무리 단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항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새 예술정책이라는 중기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담아 놓은 지역문화정책과 관계되는 부분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지역문화 진흥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문제

점을 추출해 보았는데 그 결과 느끼는 현실 인식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위해서 불균형적인 성장정책을 수립한 그 반대급부로 인해 지역 간의 불균형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니까 고속철의 개통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으나 다른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도 나타나서 그것을 우리가 보정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해서 수도권 집중화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지역간의 문화 불균형현상이 두드러지며 지역 자치단체별로 문화시설 현황을 보면 미술관의 경우 서울에는 17개인데 비해 대구, 울산, 전북은 단 1개소의 미술관도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미술 인구가 대구에 있다고 하는데도 공공 미술관 하나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불균형의 심화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84개군 단위에서는 영화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특색 있는 전통 민속문화를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의 문화환경을 볼 때 너무나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지역축제가 양산되고 있어 지역적인 특색이 묻혀 가는 것을 볼 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이나 박물관, 도서관 등 많은 문화시설을 건립해 왔는데 실제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예회관은 42% 정도에 머물고 나머지는 100일이 못 되는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실정입니다.

84개군이 영화관 하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자율, 분권, 참여의 기조를 통해 이를 정책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해 작년 말에 통과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

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 등을 지방에 이양하고 또 실질적으로 분산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부로서도 광주문화중심도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획기적이고 특단의 정책이 있어야만 지역문화도 살아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지역 문화적 이미지를 높여야 경제 발전의 여건도 조성되고 주민 공동체 의식도 늘어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해결책을 찾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직장들이 주5일제 근무로 인해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고속철 개통에 따라 이동시간의 단축으로 거리를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 지금까지의 중앙중심의 문화공급과는 달리 각 지역에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그동안 우리가 추진했던 정책은 크게 보아서 문화기반 시설 확충부분으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마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거나 문화·역사마을 만들기라든가 공공 도서관 등을 건립해 오고 있고 프로그램으로서는 문화 향수권 신장차원에서 찾아가는 문화운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2001년의 경우 '지역문화의 해' 라고 해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정리해 보는 활동을 포함해서 지역문화 인력에 대한 연수나 재교육을 실시했고 최근에는 지역문화 예술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의 감독권을 지방으로 이양을 했고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 부분도 시·도로 이양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지역문화정책은 그 추진체계나 시설운영 프로그램 개발 재정지원 부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를 발전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역간의 특화정

책보다는 1지역 1문화시설 건립과 같이 획일화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법제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자율·분권·참여가 국정 기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크게 비전적인 차원에 첫째는 자율, 분권, 참여라는 국정기조 아래에서 철저하게 지역문화를 진흥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화를 통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민간주도의 논의 구조 정립과 함께 지역문화 추진 주체의 문화적인 역량을 높여 나가는 한편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를 통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문화와 관련된 권한을 계속해서 지방 또는 민간에 이양해 주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문화 발전 체제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역문화진흥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있습니다마는 이 법을 당연히 그대로 포괄을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진흥을 할 수 있는 법 체계를 갖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이나 재정 지원부문이나 인력 양성 등의 여러 가지 부분을 담아서 제정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담당 과에서 시안 정비를 하고 내부적으로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지방문화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금년도 중에 법 제정을 마쳐서 좀 더 지역문화에 필요한 정책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별도로 지역문화와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더 세부적인 기틀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 보강부분은 민간중심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문제인데 중앙에는 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지원 기구가 있는데 운영 면에서 관주도문제와 소액 다건식의 여러 가지 논란과 비판이 있어서 민간중심의 추진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간 중심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부분은 광주에서 금년도 조례개정이 끝나서 시범적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현지의 분위기에 맞는 채비를 굳혀 나가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아까 말씀대로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해서 연관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지역문화 정책이나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지원도 하지 않고 평가이야기를 해서 의아심을 갖겠으나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성과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지 등 궁극적으로는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기능 강화할 터

그리고 지방문화원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장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전국 220개 문화원의 기구와 그 기능 보강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특별히 지원해서 그 지역의 중추적인 문화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도 일률적이 아니라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지역 호응도에 따라

차등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문화공간 확충문제와 기존의 문화시설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오랜 기간 투자를 통해서 문화시설들이 확충되어 왔다고 보고 있으나 지역간의 편차가 심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화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기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비판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마저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최소 수준의 문화기반시설 기준을 세워서 이에 미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시설투자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기존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력과 프로그램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합복권 수익 중의 일부를 지방문화원을 포함해서 일정 액수를 주요 프로그램 단위로 지원하기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부분인데 문화관광부에 교육과를 신설하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을 공교육의 일부로서 또는 사회교육의 일부로서 각 시설들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화역사마을 가꾸기라든가 특히 농촌의 경우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는 운동을 전개하고 도시의 경우는 간판문화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의 양성을 비롯해서 재교육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투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인력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개설해 가면서 지방대학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에 특화프로그램 개설

이상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많은 재정적인 투자와 함께 지역에서는 좀 더 새로운 인력과 프로그램으로 혁신적인 문화운동이 일어나서 주민들에게 다가갈 때 문화창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문화관광부는 금년도를 지역문화 진흥을 시작하는 첫 해로 삼고 대규모 시설투자보다는 소규모로 생활친화적인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과 지역문화 프로그램, 특히 문화원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거의 실행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시험적으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지역대학에서는 문화산업연구센터같은 것을 설립해서 지역문화와 산업까지 연관한 발전거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내에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하겠다는 것과 함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나 역사·문화마을가꾸기 같은 것을 좀 더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목표들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하겠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광진문화원

이강현 어린이 한해 동안 29개 강좌 수강

가을에는 169개 강좌에 4,084명이 등록해 역사적인 유료수강생 4천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자신도 설마 4천명을 넘어설까 반신반의하여 4천번째로 접수하는 수강생은 강좌 담당과 데이트하는 이벤트라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분분했지만 더 이상의 지지자가 없어서 공염불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겨울에도 조금 주춤하기는 했지만 기록은 계속 이어져서 177개 강좌 개설에 3,814명이 등록해 문화사랑의 불꽃이 활활 피워 올랐습니다.

2003년 한 해는 광진 문화원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해였습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4번의 문화강좌가 개강할 때마다 매 번 모든 신기록을 갱신하는 해였으니까 말이지요. 광진구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그만큼 커졌고 우리 광진구에 문화를 사랑하고 즐길 줄 아는 문화인이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의미기에 문화원에서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에게는 더없이 큰 보람이고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3년 한 해 동안 강좌 부분에서 재미있는 기록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가장 강좌를 많이 수강한 수강생, 가장 멀리서 수강하러 오신 분, 가장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등등 다양한 기록을 통해 1년 동안의 문화강좌를 돌아보니 또 다른 재미가 느껴지네요.

자! 2003년 광진문화원 문화강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

어났을까요?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전체적인 수강인원입니다. 봄강좌 때 134개 강좌에 3,032명이 등록하여 우리 문화원이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유료수강생 3천명을 돌파하며 신기록 작성에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 후 역대로 가장 수강인원이 적었던 여름 강좌에서도 163개 강좌에 3,677명이 등록하여 3천 5백명 고지를 가뿐이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 번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니 정말 무섭더군요. 급기야 가을에는 169개 강좌에 4,084명이 등록하여 역사적인 유료수강생 4천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자신도 설마 4천명을 넘어설까 반신반의하여 4천번째로 접수하는 수강생은 강좌 담당과 데이트하는 이벤트라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분분(사실 저 혼자 주장이었지만)했지만 더 이상의 지지자가 없어서 공염불



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겨울에도 조금 주춤하기는 했지만 기록은 계속 이어져서 177개 강좌 개설에 3,814명이 등록해 문화사랑의 불꽃이 활활 피워 올랐습니다. 따져보니 작년 한 해 동안 14,607분의 남녀노소가 저희 문화원에서 각종 문화강좌를 수강하셨더군요.

1년 동안 가장 수강생이 많았던 강좌는 어떤 강좌일까요? 1, 2, 3위 모두 음악강좌에서 나왔습니다. 열창주부가요 교실이 1년 동안 총 549명이 수강하여 1위, 가요교실이 431명으로 2위, 파워노래교실이 199명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지 잘 알 수가 있네요. 신나게, 흥겹게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 수 있는 노래교실은 앞으로도 부동의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개인기록 부문입니다.

2003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강좌를 수강하신 수강생은 누구일까요? 영예의 주인공은 구의1동에 사는 이강현(남, 연회원) 어린이가 차지했습니다. 웅변, 영어, 사물놀이, 바둑 등 총 29개의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였고 자그마치 수강료로 745,000원을 납부하셨습니다. 이강현 어린이는 강좌 수에서도 20개인 2위를 9개 차이로 멀찌감치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고 수강료 납부액에서도 2위인 720,000원을 25,000원의 간발의 차이로 제치고 영예의 1위를 차지하여 2관왕에 올랐습니다.

그 뒤를 자양 1동에 사는 장연수(여, 준회원) 어린이와 자양1동에 사는 장혜리(여, 연회원) 어린이, 구의3동에 사는 김지수(여, 연회원)가 웅변, 동요부르기, 영어, 힙합댄스, 발레, 종이접기 등 각각 20개 강좌에 등록하여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성인강좌 부분에서는 자양동에 사는 윤영귀(여, 연회원) 회원이 중국어, 서예, 단전호흡 등 20개 강좌에 등록하여 총 720,000원을 납부하여 1위에 올랐습니다. 전체 순위로는 2위를 차지하셨네요. 구의3동에 사는 함미자(여, 연회원) 회원도 기타, 서예, 규방공예 등 20개 강좌에 등록하여 공동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뒤를 구의3동에 사는 강영희(여, 연회원) 회원이 열창가요, 스포츠댄스, 가락장고 등 18개 강좌, 구의2동에 사는 노미자(여, 연회원) 회원이 컴퓨터, 공요가, 경서도민요 등 18개 강좌를 신청해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노미자 회원은 수강료 납부액에서는 강좌 수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함미자 회원의 500,000원보다 훨씬 많은 630,000원을 납부하여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자회원이 여자회원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좌 수 및 수강료 납부액 전체에서 남자회원이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특이하며 종합 1위를 차지한 이강현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순위에도 오른 남자회원이 없다는 점 남자들이 분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은 여성상위시대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우리 문화원을 보면 정말 여성파워시대라는게 실감이 납니다.



수강생 수가 제일 많은 '열창주부가요'



생활일어 중급, 공요가체조, ABC 영어, 한문서에 등 각종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85세의 전종진 할머니

이쯤에서 남자회원님들 파이팅 한 번 하십시오. 파이팅!!! 우리 문화원 문화가족 여러분들 대부분은 광진구민이지만 가깝게는 이웃 구인 송파구, 성동구, 강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등과 경기도 구리시, 하남시 등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멀리는 의정부, 인천, 안산 등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 전주, 충주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멀리서 수강하러 오신 분은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이은아(여, 비회원) 회원입니다. 이은아 회원은 가을에 생활한복 강좌를 수강했는데 생활한복반 박균순 선생님께 여쭙본 결과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은아 회원이 서울에 한달에 한 번씩은 꼭 올 일이 있어서 오면 몇 번이라도 배우고 가겠다고 해서 수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문중남 회원(여, 비회원)도 전북 전주시에서 생활한복을 수강하러 멀리 서울까지 오는 불타는 향학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충북 충주시에 사는 유안나(여, 비회원) 회원도 한국전통무용을 수강하여 문화원 역사에 한 줄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원 문화가족 중 가장 어르신은 누구 일까요? 수강생 중 가장 어르신은 생활일어 중급, 공요가체조, ABC 영어, 한문서에 등 각종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고 계신 85세의 전종진 할머니입니다.

전종진 할머니는 85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젊은이 못지 않은 정력과 학구열을 불태우고 계십니다.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일어, 영어 등의 어학강좌,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공요가체조 등의 건강강좌, 또 정서적이고 안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한 서예 강좌 등 다양한 강좌를 무리없이 소화해내시는 걸 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희 문화원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시는 전종진 할머니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하고자 연회원 가입비만 받고 모든 강좌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게 배려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저희 문화원에서 전종진 할머니의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강좌부문에서의 각종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좁은 공간, 뻑뻑한 강의시간표, 차츰 노후되어가고 있는 시설 등 모든 면에서 불편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광진문화원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모든 수강생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금씩 조금씩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쾌적한 조건에서 수강생 여러분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고 항상 함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_ 이선우 광진문화원 국장

이 글을 쓴 이선우 국장은 독일 리스트음악원에서 성악을 공부했다. 광진문화원 설립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남북어린이 합동연주회 추진위원장, 이화여대 최고피아노교육 지도자과정 강사, 성동교육청 주5일 수업 연구위원.



지역문화 즐기며 떠나는 피서여행 3선

가슴 벅찬 휴가철이 돌아온다. 연중 최대의 여행객이 이동하는 시기. 많은 사람들은 벌써부터 여행계획을 짜느라 마음 설레고 있다. 여행계획을 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여행동선을 짜기는 쉽지 않다. 피서도 즐기고 아이들과 함께 내가 숨쉬고 있는 이 땅에 평소 가기 어려운 곳을 찾아 떠나 보는 것도 피서여행의 한 방법일 듯 싶다. 남해안과 동해안, 그리고 제주도를 소개한다.

남도 문화기행

목포·진도·해남으로 이어지는 전라남도 서남 땅은 '민속문화의 보고'다. 특히 진도에는 강강술래를 비롯해 진도 들노래·씻김굿·다시래기 등 민요·농요·민속극 등이 전해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소치 허련에서 시작해 미산 허영-의제 허백련-남농 허건-임전 허문에 이르기까지 한국 남종화의 맥을 이어오는 윤림산방이 자리잡고 있는 '남종화의 메카'이기도 하다.

여기에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중간에 판소리의 이론을 세우고 여섯 마당의 사설을 완성시킨 동리 신재효(1812~1884)가 태어난 전북 고창을 둘러보는 것은 이 여행의 보너스다.

고창에서는 신재효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동리국악당(063-564-6949)을 만날 수 있다. 고창읍성 앞에 있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판소리 가락이 사람들의 발길을 부여잡는다. 국악당 옆에는 생가와 함께 판소리박물관(560-2761)도 있다.

박물관에는 동리의 유품은 물론 그 동안 한국 판소리를 이끌어 온 명창들의 계보가 소개돼 있어 판소리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독공 체험장인 발림마당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테스트할 수도 있다.

고창군에는 유네스코(UNESCO)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고인돌군(고창군 고창읍 죽림리·4백47기)이 있다. 동백꽃으로 유명한 선운사가 읍내에서 승용차로 30분 거리에 있다. 미당 서정주의 생가가 있는 진마재마을은 선운사에서 10여분을 더 들어가야 한다. 폐교인 선운초등학교 봉암분교를 보수해 지은 '미당 시문학관'에는 미당의 유품 등이 전시돼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 목포까지 내려가면 신안해저유물관과 남농미술관을 만나게 된다. 해저유물관은 신안군 중도 앞바다에서 인양한 14세기초 송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던 중 난파된 무역선에서 건져 올린 송·원대의 유물이

전시돼 있다.

남농미술관(061.276.0313)은 진도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평생

을 보내며 한국 남종화를 중흥시킨 남농 허건이 생전에 사재를 털어 건립한 미술관이다.

목포에서 영산강 방조제를 거쳐 진도대교를 건너기 전이 우수영이다. 우수영은 조선시대 수군 군영으로 임진란 3대첩중 하나인 명량대첩을 이룬 곳. 충무공 유물전시관에는 명량해전에서 사용했던 천자총통·지자총통 등이 전시돼 있고 그 때의 활약상을 담은 슬라이드도 상영된다.

진도읍을 통과해 지방도로 801호선(세방 해안 일주도로)을 끼고 달리다 보면 다도해에 점점이 떠있는 가사군도·방구도·장도·불도·사자섬 사이로 붉은 장막이 서서히 드리워진다.

세방리는 기상청이 한반도 최남단 '제1의 낙조전망대'로 손꼽는 곳이다. 그리고 이 곳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나오는 길에 남진미술관(061-543-6622)을 찾아간다. 송시열·대원군·김옥균 등의 서예작품과 울곡 이이·공제 윤두서·소치 허련·청전 이상범·오지호·김은호 등 내로라하는 인물들의 그림이 전시돼 있다. 서예가 장전 하남호가 사재를 털어 건립하고 운영하는 곳이다.

'남종화의 메카'로 불리우는 윤림산방(061-543-0088)에서는 소치 허련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해남땅을 찾아가 고산 윤선도의 유적을 전시한 녹우당과 한국 다도(茶道)의 본산인 두륜산 대흥사를 둘러본다.

녹우당은 해남 윤씨의 종가로 고산 윤선도의 고택이다. 고산 유물전시관(061-530-5548)에는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국보 제 240호), 해남 윤씨 가전고화첩(보물 제 481호) 등의 유물이 전시돼 있다.

무엇을 먹을까

'씩어도 준치'라는 옛말이 있다. 그만큼 맛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다. 준치는 가시가 많아 손질이 많이 가는 생선이지만 육질이 연한 것이 특징이다. '선창횡집(전남 목포시 만호동·061.244.3708)'은 2대에 걸쳐 30년간 준치회 무침만 요리하는 식당으로 목포에서는 잘 알려진 곳이다. 그런가 하면 세방 낙조를 감상하고 근처에서 목을 수 있는 유일한 숙소로 다도해관광회센터(전남 진도군 지산면 세방리·061.543.7227)가 있다. 시설은 다소 떨어지나 창밖으로 기묘하게 생긴 손가락섬·발가락섬·불도 등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진다. 아침 조식은 생선지리탕과 각종 반찬이 곁들여지며 5천원을 받는다.

동해안 드라이브

강원도 고성군에서 시작해 속초~강릉~삼척~영덕~포항~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이르는 국도 7호선은 동해안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다. 그중 삼척~맹방, 궁촌~원덕~울진, 후포~병곡, 강구~송라 구간은 해안 절벽을 끼고 돌기 때문에 가장 풍광이 뛰어난 곳이다.

해안 절벽에서 내려다보는 바다는 짙은 옥색물감이 툭툭 떨어지고 햇살에 반짝이는 파도를 바라보노라면 눈마저 시리다. 해안선을 따라 모래 해변을 뚫고 솟은 갯바위도 밀려오는 파도에 온몸을 맡긴 채 태고 이래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삼척바닷가에 자리잡은 신남(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갈남(갈남1리)·부남(근덕면 부남리)·초곡마을(근덕면 초곡리)은 동해안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어촌으로 손꼽힌다. 갈매기만 외로이 해변 곳곳에는 색깔 바래지 않은 갯 사람들의 진득함이 묻어난다.

신남마을은 남근제(男根祭)로 더욱 유명해진 어촌이다. 어촌마을 오른편 끝으로는 추암해수욕장의 촛대바위보다 더 매끄러운 갯바위가 병풍처럼 늘어서 있다. 원편 언덕에는 매년 정월 대보름과 음력 시월 초아흐레 당제를 지내는 해신당이 있다. 해신당을 오르는 길옆에는 나무를 깎아 만든 남근모양의 장승이 서있다.

갈남마을은 갈매기떼가 가득 붙어사는 월미도와 바닷가에 널려 있는 고만고만한 바위가 신이 빚어놓은 조각인양 저

마다의 모습을 한껏 뽐낸다. 그런가 하면 맹방해수욕장의 드넓은 바닷가는 해돋이로 유명한 진자그마한 정동

무엇을 먹을까

10여년전만 해도 동해안에서 부지기수로 잡히던 곰치는 먹지 않고 버렸던 생선이다. 곰치국은 1993년 11월 바다회집(삼척시 정하동·033.574.3543)에서 처음 버리는 생선이 아까워 묵은 김치를 넣고 만든 것이 효시다.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애주가의 속을 푸는데는 그만이다. 삼척해수욕장에서 새천년 해안도로를 따라 삼척항으로 내려오면 원편에 있다.

진보다 툭 띄어있는 모습이 가슴마저 시원하게 해준다.

고개를 넘으면 눈앞으로 옥빛바다와 새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진다. 하염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하늘을 나는 갈매기의 노래소리가 텅빈 백사장을 가득 메운다.

이렇게 해안 드라이브를 하다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긴 후 발길을 내륙지방인 태백으로 돌린다. 태백은 여름철에도 모기가 없고 새벽녘에는 쌀쌀한 고원 도시다. 덕분에 요즘은 아예 이곳에 숙소를 정하고 낮이면 1시간 남짓 떨어진 동해안으로 해수욕을 하고 오는 피서객들도 많이 늘었다.

원덕에서 일반도로 416호선은 가곡천을 따라 태백까지 연결되는 길가에서 신리 너와집과 미인폭포를 만날 수 있다. 고원도시 태백에는 낙동강 1천3백리의 첫여울인 황지, 1천3백여리를 흘러 서해로 들어가는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 1억5천만년에서 3억년전 사이에 형성된 석회동굴로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된 용연동굴,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석탄박물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역인 추천역(8백55m),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고개인 만항재(1천3백40m) 등 가볼만한 명소가 곳곳에 널려있다. 그리고 영월을 거쳐 올라오는 귀경길에는 김삿갓묘·장릉·청령포 등을 만날 수 있다.

서울에서 동해안을 찾으려면 보통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 강릉을 거치지만 휴가철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므로 영동고속도로 새말인터체인지를 빠져나와 평창~정선을 거쳐 동해로 연결되는 국도 42호선을 이용하면 손쉽게 동해안을 찾을 수 있다. 아니면 중앙고속도로 제천인터체인지를 빠져나와 영월~태백을 거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도 싫다면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 영주~봉화를 거쳐 울진까지 달린 후 거슬러 올라오는 방법도 한 가지다. 이 경우는 춘향목의 집산지였던 봉화를 거쳐 울진으로 가는 도중 소광리 소나무숲(경북 울진군 서면)을 둘러볼 수 있는 것은 이 코스만의 자랑거리다. 1천6백여ha의 천연보호림에 들어서면 2백년 이상된 금강소나무 8만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산림생태계의 보고로 손꼽힌다.

무엇을 먹을까

제주의 별미로는 갈치국·갈치회를 비롯해 해물 뚝배기·순대국·자리물회·한치물회 등을 꼽을 수 있다. 갈치국은 물항식당(755.2731), 해물 뚝배기는 삼보식당(762.3620), 고등어회는 도근네 횃집(743.6070), 순대국은 일미순대(746.8428)가 유명하다.

제주기행

삼다(三多) 제주도는 설명이 필요없는 곳. 여름철이

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제주도는 도로 표지판이 잘 만들어져 있고 렌터카마다 관광지지와 2박3일·3박4일 코스일정을 소개하는 지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초행길이라도 운전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제주여행의 특징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는 볼거리 여행이 주를 이룬다. 숙소를 서귀포로 가정하고 여기에 맞춰 드라이브 코스를 소개한다.

첫날은 공항에 내려 용두암에서 이호 해수욕장~하귀~애월을 거쳐 협재 해수욕장을 지나 차귀도 앞바다에 닿게 되는 서해안 도로를 이용한다. 이국적 식물공원인 한림공원(064-796-0001)과 제주의 상징물인 돌하르방·해녀상·동자상·물허벅을 진 어머니상 등 현무암 조각상을 감상하는 금릉석굴원을 둘러보고 차귀도와 모슬포평야가 한눈에 들어오는 수월봉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다. 수월봉은 제주 최고의 일몰 관광지로 유명하다.

이튿날은 남제주군 안덕면의 용머리해안·송악산·산방굴(794-2940) 등을 둘러보고 배를 타고 마라도를 다녀온다. 셋째날은 하루 쉬는 날로 잡고 중문단지에 있는 곰인형박물관(735-7100)과 여미지식물원 등을 가볍게 둘러본다. 밤에는 서귀포 천지연폭포의 야경도 감상한다.

마지막 날은 남원 신영박물관~제주민속촌(787-4501)을 거쳐 황토빛 구렁이 해안을 따라 쪽 이어지는 절경으로 sbs방송 드라마 '올인' 세트장이 세워졌던 섭지코지(784-0959)를 들린다. 눈앞에 성산 일출봉과 그 뒤편으로 우도가 손짓한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일출봉도 한번 올라가면 좋은데 20~30분 정도 소요된다. 세화리 해안도로를 따라 제주방향으로 올라오면 세계에서 가장 긴 용암동굴(1만3천4백22m)-만장굴(783.4818)을 만나게 된다.



해남 윤씨의 종가로 고산 윤선도의 고택인 녹우당 전경



남종화의 메카인 윤림산방의 정원 풍경



새벽 안개에 휩싸인 세방리 앞바다의 섬 모습



맹방 해수욕장 끄트머리에 있는 갯바위의 모습



소광리 소나무숲 입구에 있는 500년된 소나무

제주 서귀포에 있는 주상절리 모습



글·사진 _ 김세준 | 중앙일보 기자
성균관대 국문과 졸업. 한양대 관광학 석사. 1986년 중앙일보 입사 후 여행·레저 부문을 14년간 맡고 있다. 남가파르밋(95년), 안나푸르나(99년), 칸첸중가·K2(2000년) 등 원정. 중학교 1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에는 하회마을 관련 글이 실려있다.

온 가족이 가볼만한

계절이 주는 여유로움도 만끽하면서 아이들에게 즐겁고도 유익한 나들이가 될만한 좋은 계획은 없을까? 인파 속에 떠밀려 고생만 실컷 하는 놀이공원이나 ‘에이 시시해’ 하는 아이들의 푸념이 늘어터지는 그렇고 그런 나들이가 아니라 재미도 있고 현장학습에 딱 맞는 교육적인 효과도 만점인 그런 나들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도 보고 주변 박물관에 들러 재미있는 전시물도 구경하고... 한번 발걸음에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족 나들이로 문화유산 옆 박물관 여행은 어떨는지.

문화재 옆 박물관

창덕궁 옆 떡박물관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에서 종로3가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면 오른 편으로 불쑥 솟은 새 건물이 있다. 건물의 입구 한 편으로 시원하게 대나무가 자라고 건물 1층은 세련된 분위기가 흐르는 카페가 꾸며져 있는데 이 건물이 한국전통음식연구소이다. 1층의 카페는 우리 전통차와 떡을 맛 볼 수 있는 '질시루'라는 떡카페이고 이 건물 2~3층에는 떡·부엌살림박물관이 있다.



3층 떡박물관에는 느티떡, 두텁떡, 깨찰편, 오메기떡 등 우리 조상들이 만들고 즐겨 먹었던 이름도 생소한 다양한 떡들이 조리 방법에 따라 전시되어 있으며, 떡살, 다식판, 맷돌, 시루, 절구, 체 등 떡을 만들던 조리기구, 떡과 함께 어울리는 전통차와 민속주가 전시되어 있다. 2층 부엌살림박물관에는 주발을 비롯해 막사기, 종지, 수저 등의 식기류를 비롯해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두루 갖춰놓고 쓰던 부엌살림들이 전시되어 있어 우리 전통음식문화를 엿보고 맛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공간이다.

주소 | 서울시 중구 와룡동 164-2 전화 | 02.745.5477 휴관일 | 매주 일요일

관람료 | 일반 3,000원 (단체 2,000원) / 초·중고생 2,000원 (1,000원)

덕수궁 옆 신문박물관

경복궁과 덕수궁의 중간 지점인 광화문 네거리 동아미디어센터 3~4층에는 신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읽어볼 수 있는 신문박물관이 있다.

근대적인 신문 및 인쇄 자료들을 세련된 공간 구성과 현대식 전시 시설에 담아내고 있는 신문박물관은 세계 각국에서 발행된 신문과 신문의 역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신문역사관을 중심으로 1920년 4월1일자로 창간호를 낸 이후 지금까지 동아일보의 발자취를 통해 국내 신문과 인쇄매체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기획전시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만의 신문을 만들어보고 미래 신문의 형태와 성격을 영상매체를 통해 상상해볼 수 있는 미디어 영상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신문역사관에는 신문디자인과 신문에 게재된 사진, 광고, 어린이신문 등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으며 컴퓨터로 제작하기 전 과거에 사용했던 여러 기계 등을 통해 신문의 제작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미디어센터 3,4층) 전화 | 02. 2020.183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관람료 | 일반 3,000원 (단체 2,000원) / 초·중고생 2,000원 (1,000원)

문경새재 입구 문경새재박물관

KBS 역사드라마인 왕건의 촬영장으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잦아진 경상북도 문경의 문경새재국립공원에는 문경새재의 많은 유적들과 함께 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공간인 문경새재박물관이 공원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전시실에는 문경새재를 소개하는 여러 전시물들과 의·식·주, 신앙과 의례, 생업기술 등 문경 지방의 민속과 생활풍습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도자기, 고문서와 그림 등이 지방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문화재들도 전시되고 있다.



주소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242-1 전화 | 054.572.4000 휴관일 | 연중무휴

관람료 | 무료(문경새재 국립공원 입장료는 징수) · 일반 1,900원 (단체 1,500원) 중고생 1,100원(800원) 초등학생 700원(600원)

다산초당 입구 다산유물전시관과 강진청자도요지의 강진청자박물관

전라남도의 남도 강진에 가면 참으로 아름답고 정겨운 풍경과 사람들도 가슴이 빠근하다. 특히 조선 후기 최고의 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유배생활을 하며 학문을 하던 다산초당은 초당의 풍경은 물론 초당 가는 길의 분위기도 매력적인 곳. 이곳 다산초당과 백련사를 가기 입구에는 다산유물전시관이 있다. 이곳에는 다산 선생의 영정과 가계도, 업적과 유물들이 패널과 조형물로 전시되어 있다. 가까운 주변에 강진 청자 도요지에는 강진청자자료박물관이 있는데 이곳에는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아름다운 다양한 청자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청자 빚기 체험도 해볼 수 있다.



주소 |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368 전화 | 061.430.3345 휴관일 | 연중무휴

관람료 | 무료

하회마을 입구 하회동탈박물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장 안동, 바로 그 안동에서 손꼽히는 문화유산은 퇴계 이황 선생이 학문을 완성한 도산서원과 전통 민속마을인 하회마을이 있다. 하회마을은 한국인의 인상을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보물 하회탈과 병산탈의 본 고장이며 병산서원과 고택 등 전래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마을. 이 마을 입구에 하회동탈박물관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안동의 하회탈은 물론 우리나라 각 지방의 탈놀이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하회동탈박물관이 있다. 제1전시실인 한국관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각종 탈들이 전시되어 있고, 제2전시실인 세계관에는 세계의 희귀한 탈들이 그리고 제3전시실에는 콩고와 자이르 등 아프리카 나라들의 탈과 악기, 생활용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주소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287 전화 | 054.853.2288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관람료 | 일반 1,200원 (단체 800원) 초 · 중고생 700원(500원)

진주성 안 국립진주박물관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의 한 곳이며, 2차 진주성 싸움 뒤 진주의 관기인 논개가 왜군의 장수를 껴안고 함께 강물에 뛰어든 축석루가 있는 경남 진주시의 진주성. 바로 진주성 안에 임진왜란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임진왜란 전문 역사박물관인 국립진주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국립진주박물관에는 임진왜란을 주요 테마로 임진왜란과 관련한 문학, 서화, 음악 등 당시 문화와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상과 임진왜란 당시 포로들의 행적과 기록, 서구인의 시각에서 본 임진왜란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다. 특히 2층 전시관은 임진왜란의 경과를 체험하며 관람할 수 있게 전시장이 배치되어 있다.

주소 | 경남 진주시 남성동 169-17 전화 | 055.742.5951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관람료 | 일반 400원 (25세-64세) 할인 200원(19세-24세) 무료(18세 이하, 65세 이상)



담양 소쇄원 근처 담양죽물박물관

한국의 정원 중 최고의 정원으로 꼽는 소쇄원과 아름다운 메타쉐콰이어 가로수길, 가사문학의 대가인 정철이 풍류가 흐르는 송강정과 송순의 면양정가로 유명한 면양정과 식영정 등 유서 깊은 정자들이 있는 곳 담양에는 이런 문화유산들 말고도 현장학습지로 꼭 들러볼 만한 박물관이 두 곳 있는데 바로 담양가사박물관과 담양죽물박물관이다. 죽물박물관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나무숲을 보유하고 있어 예로부터 죽세공품이 발달한 담양의 다양한 대나무 공예품을 감상할 수 있고 대나무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박물관이다.

주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40-1 전화 | 061.381.4111 휴관일 | 연중무휴
관람료 | 일반 500원 (단체 300원) 중고생 300원(200원) 초등학생 200원(100원)



불국사 가는 길에 신라역사과학관

가장 많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한데 모아놓은 도시 경주, 바로 경주에서 불국사와 석굴암을 관람하고 나오는 길에 둘러볼 만한 박물관이 있다. 바로 민속 공예촌 내에 있는 신라역사과학관이라는 곳이다. 첨성대, 석굴암 등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유물들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과학성을 엿볼 수 있는 매우 독특한 전시관으로 석굴암, 첨성대, 상원사 범종, 대장경판과 장경각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물들의 신비로움을 축소모형을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그 우수성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있는 곳. 그래서 이곳을 관람하면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과학정신과 그 기술에 대해 새삼 감탄을 하게 되는 매우 유익한 현장학습이 될만한 곳이다.

주소 | 경북 경주시 하동 201-1 전화 | 054.745.4998 휴관일 | 연중무휴
관람료 | 일반 2,500원 (단체 1,800원) 중고생 1,500원(1,200원) 초등학생 1,200원(900원)



또 오세요!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로...

해 뜨는 아침이면 문화유산이 아름답고,
해지는 저녁이면 자연이 아름다운 서산은
당신이 머물고 싶은 휴식처입니다



봄날은 간다!

“안녕하세요.” 해미읍성 성곽을 따라 걷다가 성곽을 산책하는 마을 어른을 만났다. 성안에는 노랗게 꽃이 피었고 따듯한 봄 햇살이 즐거운 나비는 쌍쌍이 즐겁게 가벼운 날개짓을 한다. 읍성의 관문인 진남문에 들어서 성곽을 따라 좌측의 서산고를 마주치면서, 성곽을 따라 돌면서 가야산을 본다. 읍성 안은 관아가 위치한 평지와 청허정이 위치한 동산으로 나뉜다. 성곽을 한바퀴 돌아보는 산책길은 성안과 밖을 함께 조망할 수 있다. 관아뒤편으로 대나무밭을 지나 울창한 소나무 숲을 지나치면 좌측에 깔끔하게 정돈된 잔디구장이 인상적인 해미초등학교가 있다. 해미읍성은 성곽을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공원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할 정도의 고요함과 현재를 돌아

사체험 견학을 온 초등학생들을 만났다. 학생들은 체험 안내도를 보면서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즐겁게 체험장을 견학하고 있었다.

관아체험장에는 가족과 함께 온 아이들이 옛 무인들이 입던 갑옷을 입고 엄마 아빠와 사진을 찍는다. 육방, 관아복식 체험은 상설로 관아체험 마당극, 태종대왕순행 행차시연은 1일 2회 진행되었다. 이 중 관아복식 체험은 조선시대 신분 및 역할, 임무 등을 복장체험을 통해 교육, 궁중의상 체험병행 복장 전문인이 복장착용을 돕고 복장 및 신분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여 많은 관람객의 인기를 끌었다.

새우젓 타령

새우젓 사려 조개젓 사려
 초봄의 살새우는 새아젓이오,
 오류월에 담은 것은 추석젓이오,
 겨울에 담은 것은 동백젓일세
 새우젓 사려 조개젓 사려
 전라도 법성포연의 중아젓이오,
 서산 앞바다의 어리굴젓이오,
 흥합젓, 공쟁이젓, 오징어젓, 꼴뚜기젓,

송생이젓, 빈대이젓, 편쟁이젓,
 멸치젓, 갈치장자젓이오,
 자 입맛나는 대로 골라 사시오,
 싸구려 막과는 새우젓이오,
 오류월 보리밥엔 새우젓이오,
 흰겨울 김치국엔 어리굴젓이오,
 장장 나지 않는 꼴뚜기 젓일세
 자 새우젓이오 새우젓 사시오.



보게 하는 옛스러움이 함께 있는 해미읍성에서 5월 2일부터 이틀간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역사체험축제가 열렸다.

체험! 역사의 현장으로

축제 첫날 성안으로 들어서자 선남선녀로 분장한 학생들이 축제관람객을 맞으며 즐거운 인사를 한다. 관람객들은 이몽룡, 성춘향을 만난 듯 반가워하며 기념촬영을 하기도 한다. 이른 시간부터 성안 곳곳에 마련된 체험축제 현장에는 인파로 가득하다. 체험프로그램은 특성상 상설운영 코너 마당극, 체험극 등은 1일 2회 내지 3회, 소달구지 체험 등은 수시로 진행되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제공되었다. 인근 초등학교에서 역

군영체험장에서는 군장전시 및 진중막사 재현, 활쏘기 시연 및 체험이 상설로 군사훈련재연 및 체험이 1일 2회 열렸다. 조선시대 청주로 본영이 옮겨지기 전까지 서부지역의 군사요충지였던 위용을 보여주듯이 군사훈련이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었다. 군사훈련으로는 제식동작 및 무술 시범이 있었다.

장터체험장에는 조선시대 장터재현, 지역특산물 홍보 전시, 판매가 상설로 장터마당극이 1일 3회 열렸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던가. 축제관람객들이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고 잔치국수에서부터 막걸리까지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된 장터에서 시장기를 채울 수 있었다. 장터에는 삼베시연을 하는 포목점, 집풀공예, 필방, 떡집, 젓갈, 한의원, 갓공방, 점집 등 난점과 초가로 구성되어 옛스러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장터 한쪽에 옛날 장터에서 새우장수가 부르던 입담 좋은 타령이 적혀 있어 옮겨본다.

민속공연체험

축제기간 동안 서산지역의 민속을 알 수 있는 박첨지놀이, 지점놀이, 용대기놀이, 벧가릿대놀이, 달구놀이, 탈춤극 박첨지놀이도 함께 펼쳐졌다. 서산민속공연은 1일 3개 단체에서 2회씩 공연했다. 둘째날 펼쳐진 탈춤극 박첨지놀이는 서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놀이패 빨바람(단장 구자은)이 준비했다. 서산 박첨지 놀이는 1920년대 후반부터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4구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다. 인형극 박첨지 놀이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었다. 탈춤극으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된 박

운영되는 소달구지 체험, 조선시대운송도구체험, 찾아가는 민속 박물관 등을 수시로 운영하여 흥겨운 축제마당을 펼쳐놓았다. 학생들을 위한 참여프로그램으로는 한국미술협회서산지부에서 주관한 사생대회, 서산문화회에서 주관한 백일장이 열렸다. 사생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봄을 맞은 성안의 곳곳을 전통문양이 선명한 색으로 당간주며 설곽의 돌을 칠해 나갈 때 어깨 너머로 감탄을 하는 관람객들도 보였다.

함께 하는 축제의 즐거움

잔치의 주인공은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초대한 사람들이다. 잔치는 축하하거나 축하받을 만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한다. 잔치문화가 축제로 이어질 때 축제는 즐거움

더 가까워진 서산갯마을

한반도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는 서산갯마을은 살기 좋은 도시풍경, 마을경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남북을 이어주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서산, 해미, 홍성IC까지 차로 1시간 안팎이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서남북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서산갯마을을 찾아오고 있다. 거리가 가까운 만큼 이곳저곳 유서깊은 문화유산도 둘러보고 해 지는 석양에 운무를 펼치는 철새들을 볼 만큼 여유를 만끽할 수 있어 좋은 여행지 서산갯마을로 가보자.

마애삼존불이 미소로 맞아주는 서산

자연을 돌아보며 문화유산을 찾는 의미있는 여행을 원한다면 해미IC로 나와 해미읍성을 둘러보고 운산면 용현리로 향하여 미소가 아름다운 마애삼존불상을 볼 수 있다. 날씨가 좋은 날에 이 지역을 방문한다면 가벼운 등산차림으로 가야산이나 팔봉산에 오르면 섬들이 손짓하는 서해바다를 여러 곳에서 바라볼 수 있다. 산에서 바라보는 넓은 바다 위에 펼쳐진 석양은 동해에 떠오르는 일출과 견줄 만큼 운치가 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마을에 들어서면 갯내음과 함께 정겨운 어촌 사람도 각종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첨지놀이는 인형극 박첨지 놀이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재미있게 꾸며졌다.

민속경연

용구새틀기, 성돌나르기, 장기, 방아찝기, 투호, 풍물경연대회가 수시로 열렸다. 경연대회는 지역의 읍, 면, 동의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경연을 진행, 지역민들이 서로 화합해서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민속놀이체험으로 고누놀이, 팽이치기, 투호놀이와 전통두구체험으로 국수틀, 매통, 맷돌, 가마니틀, 제기차기가 상설로 열려 흥겨운 놀이마당이 만들어졌다. 그중에서도 투호는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로 집중력이 요구된다. 그 외에도 해미읍성 진남문에 들어서면 축제 안내지도를 배치하고 수시로

이 될 수 있다. 해미읍성축제는 이틀동안 해미읍성에서 벌어진 역사체험을 테마로 한 마을잔치이다. 잔치라서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 초대받은 손님과 어우러져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한마당이 펼쳐진다. 역사체험축제가 해를 더해가면서 좋은 축제가 되어 가는 것도 축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즐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읍성이 위치한 해미면은 많은 사람들이 축제기간 동안 차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주차장 등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지역주민의 협조와 주변의 학교 등을 주차장으로 적절하게 이용하여 큰 어려움 없이 이틀간의 축제를 마칠 수 있던 것도 함께 하는 축제의 좋은 예이다.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신상찬)가 주관하고 문화관광부, 충청남도가 후원한 이 축제는 해미읍성의 역사성을 테마로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향토애를 고취하는 한편 교육·가족형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제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유치, 관광객에게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취재후기 이들간의 축제를 체험하고 역사체험축제가 더 발전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해미읍성을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한 점을 적어본다. 프로그램 전개는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주요 역사체험의 테마가 될 수 있는 활쏘기, 군영, 관아체험 등을 축제를 통한 관광체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경일 등에 공연함으로써 경험을 축적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정기적인 축제의 한계를 넘어 설 수 있는 내실 있는 준비로 축제추진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역사체험축제의 한마당을 만들 수 있다.

해미읍성은 서산, 태안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리적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 해미IC와 가깝지만 일반관광객들은 서산IC를 통해 서산, 태안지역을 방문하여 해미읍성을 찾는 관광객이 서산, 태안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비해 훨씬 적은 편이다.



체험, 민속공연, 대회 및 참여형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조화와 짜임새가 있었다. 하지만 체험프로그램에서는 역사, 종교적인 색채를 담아내기 위해 소재를 나열하는 단계를 넘어서 역사 속의 주제가 있는 구성이 필요하다.

민속공연, 대회 및 참여형 프로그램은 축제 동안 더 흥겹고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축제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미읍성이라는 공간이 축제손님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역사, 종교적인 교훈을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축제만을 위한 축제준비로는 좋은 결실을 이루기 힘들다. 1년 동안 해미읍성을 찾는 방문객들로부터 얻은 해미읍성과 관련된 공금증을 토대로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문화공연으로 자리매김 할 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문화유산에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멀리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그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알리는 일은 바람직하다. 백제의 마애삼존불상처럼 해미읍성도 조선초기에 지어진 성터로 잘 보존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길 희망해 본다. 해미읍성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날마다 읍성성곽을 산책하는 마을 어른처럼 꼭 성곽을 따라 돌아볼 것을 권해본다.

글·사진 _ 정경식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문화도시 문화복지' 취재기자로 일했다. 현재 충남 서산에서 영화어학연구소 매니저로 재직중.
cuspace@hanmail.net



New Books

18세기를 이끈 조선의 '마니아' 를 만난다

미쳐야 미친다 | 푸른역사

조선시대 지식인의 내면을 사로잡았던 열정과 광기를 찾아서 소개한 책이다. 허균, 권필, 홍 대용, 박지원, 박제가, 정약용 등의 조선시대 작은 영웅들을 복원하고 있다. 절망 속에서 성실과 노력으로 자신의 세계를 우뚝 세워 올린 노력가, 삶의 곧 예술이 되고 예술이 그 자체로 삶이었던 그들.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 세워 시대의 마니아로서 살았던 그들의 진솔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당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이러한 '마니아적 성향'은 시대적 추세였다. 이덕무는 책에 미쳤으며, 바다 생물에 미친 정약전은 '현산어보'를 남겼다. 자신들이 세운 뜻을 위해 송곳으로 귀를 찌른 이도 있었으며, 심지어 굶어죽은 천재도 있었다. 이렇듯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했던, 미치지 않고선 이를 수 없었던 그들의 열정적 생애는 오늘날에도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준다.

조선의 개혁을 위한 3형제의 인생 역정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1.2 | 김영사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사도세자의 고백'에 이은 역사평론가 이덕일의 조선후기 인물사 3부작의 완결편이다. 시대의 절망을 딛고 민중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간 정약전, 고문 끝에 목이 잘리면서도 신앙을 지켜낸 정약중, 지배 권력의 공격 속에서 좌초된 꿈을 학문으로 승화시킨 정약용은 닫힌 시대에서 열린 사회를 지향했다는 이유로 저주를 받고 비참하게 죽어갔다.

이 책은 당대 현실에서 우려나온 실학과 선진 과학문물, 그리고 인간중심의 새로운 사상으로 침몰해가는 조선사회를 규명하려 했던 정약용과 형제들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서술하고 있다.

주자학 유일사상과 노론 일당독재의 폐쇄 체제에 맞서 열린 사상으로 신 사회를 지향했던 정조와 정약용, 그리고 그 형제들의 인간적인 드라마와 좌절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한국의 제사를 총 정리한 종합보고서

한국의 제사 |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은 최근 전통 제사에 대한 종합보고서 '한국의 제사'를 발간했다.

제사의 현장은 물론 문헌자료를 통해 제사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 생생한 사진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우리의 제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 의하면 현재에도 행해지는 종묘대제와 같은 국가제사에 삼국지의 관우를 모시는 관왕묘 또한 포함되었다고 한다.

이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왜군을 물리침에 있어 관우 신령의 힘이 컸기 때문이라고. 여자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18세기 이후의 일로 이전까지는 아헌(제사 지낼 때, 두 번째로 술잔을 올리는 일)을 했다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제사를 지내는 의미만큼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경기누정문화

산수 좋고 물 맑은 곳이면 어김없이 누와 정자를 지어 선비들이 사색과 시문을 지으며 담론을 나누었다. 수도권 개발이라는 현대화에 밀려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 가는 아쉬움 속에 현존하는 경기도 내의 정자와 누를 조사해 시·군별로 수록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30페이지)



밀양의 독립운동사

일본제국주의의 강점 이후 자주독립과 주권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조선의열단, 조선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를 이끈 항일투사가 많이 배출된 밀양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을 재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간하였다. (밀양문화원, 611페이지)

왕의 여자들에 대한 비밀스런 호기심

‘궁녀’ | 시공사

이 책에는 장녹수와 같이 익히 알려진 궁녀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녀들의 삶의 엿볼수 있는 갖가지 궁금증들을 풀어주고 있다. 궁녀들의 자격, 신고식, 월급 등 다양한 얘기거리 속에 빠져들다 보면 어느새 책장을 넘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조선시대의 신데렐라로 지칭되는 신빈 김씨는 공노비 출신으로 젊은 세종의 즉위와 함께 궁으로 들어와 임금의 눈에 띄고, 그의 아이를 낳았으며(아들 여섯, 딸 둘), 빈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니 가히 신데렐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궁녀에 대한 웬만한 궁금증은 이 책에서 거의 풀린다. 궁녀는 2고대 근무를 하며 12시간 일하고, 36시간을 쉬었다. 월급도 만만치 않아서 최하위 궁녀들조차 1년에 근 10가마(한식구가 호구지책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곡식을 받았다.

800컷의 생생한 자료로 만나는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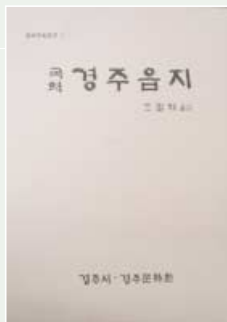
‘新궁궐기행’ | 대원사

최근 ‘가장 한국적인 정원’으로 손꼽히는 창덕궁 후원이 무려 28년만에 추가 개방되어 드라마 대장금의 배경이 되었던 애련지를 비롯해 옥류천, 존덕정 등을 새롭게 볼 수 있게됐다.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시간을 내어 이곳을 찾고 있다. 이럴 때 기왕이면 사전지식을 갖고 찾는다면 건물과 정자의 겉모습만 훑고 내려오는 우를 범하지 않을 듯 하다. 800컷에 달하는 사진, 자료, 그림을 통해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궁궐을 소개한 ‘新 궁궐기행’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을 비롯해 궁궐은 아니지만 궁궐 못지 않게 왕실 건축의 중추 역할을 했던 종묘(宗廟)를 더했다. 궁궐을 가장 한국적인 미래 인프라라고 규정하는 이 책의 저자 이덕수는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판자료실장으로 있다.



비안현의 문화와 오늘의 삶

조선시대 성리학이 꽃을 피운 비안현은 청동기 문화를 간직한 역사의 고장으로서 임진란과 3·1독립만세 운동을 통해 의거정신이 강한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오면서 간직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유산을 이 한권에 옮겨 놓은 비안인의 생활사이자 민속이며 그들의 역사책이다.(의성문화원, 654페이지)



국역 경주읍지

장구한 역사의 도시 경주는 많은 유산들이 남아 있어 경주인은 물론, 국민 누구에게나 자긍심을 갖게 한다. 경주읍지는 1932년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동경잡기 등을 참고로 해서 인문지리서로 간행된 바 있으나 그 내용이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웠다.(경주시·경주문화원, 851페이지)

우리문화

• 발 행 : 전국문화원연합회

우편번호 : 121-715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

성우빌딩 1202호

홈페이지 : www.kccf.or.kr

전 화 : (02)704-2311~3

팩 스 : (02)704-2377

• 등 록 : 라36627(1984.7.12)

• 발행·편집인 : 권용태

• 편집주간 : 채강희

• 기획팀장 : 강민철

• 편집&디자인 : 컬처플러스

우편번호 : 100-013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24-3

제복빌딩 303호

홈페이지 : www.cultureplus.com

전 화 : (02)2264-9028

팩 스 : (02)2264-9021

• 인 쇄 : 한국컴퓨터인쇄정보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48-73

전 화 : (02)2275-8106

팩 스 : (02)2275-8107

정 가 : 3000원

May · June 2004 Vol 170

우리 문화 속의 성과 로맨스

순결을 위해 아들을 죽인 裴氏女

‘아들의 목숨이 소중한가?’ ‘여성으로서의 순결이 중요한가?’ ‘한국학’의 대가로 불리는 이규태씨의 명저 ‘한국인의 성과 사랑’(문음사 刊)에 보면 한국 여성이 얼마나 성에 억압되어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글이 나온다.

전라남도 신안에 배씨녀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자색도 곱고 몸매도 빼어나 이 해안지방을 약탈하는 왜적이 눈독을 들이고 뒤쫓았다. 배씨녀의 뒤를 쫓아온 일단의 왜적들은 배씨녀가 어디로 숨어 버리고 없는 것에 화가 났다. 불을 지른다고 고함을 쳐도 나타나질 않았다. 잔인한 왜적들은 이 배씨녀가 어디신가 기어나올 수 있도록 계책을 꾸몄다. 그녀에게는 열두살난 아들 지립과 열살난 지발 두 아들이 있었다.

왜적은 이 두 아들을 잡아왔다. 여성에게 있어 가장 아픈 모성애를 미끼로 삼아 끌어낼 작정을 한 것이다. 이들은 여물 썬는 큰 작두를 가져다 마당 한가운데 놓았다. 그리고 지립과 지발의 손을 뒤로 묶고 처든 작두날 아래 목을 겨냥해 누웠다.

이제 처든 작두를 누르기만 하면 두 형제의 목이 나뿔굴 판이었다. 잠적을 했던 배씨녀는 바로 이 두 아들이 목을 나란히 하고 멀뚱 멀뚱 눈알을 굴리고 있는 네 개의 시선이 마주치는 공간 속에 있었다. 두 아들은 마냥 엄마를 불러댔다. 빨리 나와서 우리 형제를 구해 달라는 그러한 목적과 요구가 있는 울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갓 태어나서 엄마를 부르는 듯한 본능적인 위침이었다.

배씨녀는 뛰어나갈 맘을 먹고 옷춤을 추졌다. 한데 무언가 그의 본능적 발작을 억제해 짓눌렀다.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돼, 나가면 겁탈을 당한다. 겁탈이 너 혼자만의 육체적 피해만으로 끝난다면 나가도 된다. 하지만 네 일신의 수모는 네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 시할아버지, 온 가문, 시집의 조상들, 그리고 시집의 후손들에게까지 욕을 입힌다.’

배씨녀는 두 아들의 비명을 귓가에 들으면서도 얼어붙은 듯 밖으로 한발자국도 나가질 못했다. 왜적들은 화가 치밀대로 치밀었다. 그런 끝에 왜적들은 무자비하게 작두를 내리눌렀다. 두 아들의 비명도 그치고 두 머리가 마당에 나뿔굴었다. 그래도 성이 안풀렸는지 왜적들은 두 아들의 시신에 갈을 대어 간을 내어 나무에 걸어놓는 것이었다.

그녀는 미치고 말았다. 미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후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해변을 방황했고, 방황하다가도 파도만 치면 그 소리를 두 아들이 울부짖었던 엄마소리로 듣고 마냥 귀를 막고 주저앉아 몸부림치곤 했다 한다. 이렇게 몸부림치며 방황하다가 바닷가 높은 바윗돌 위에서 부딪치는 파도소리의 그 환각적인 비명에 흘러 몸을 던져 버렸다 한다.

이처럼 우리 한국여성에게 성(性)이란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도 차마 뛰쳐나가지 못할 만큼 억압적인 성(城)이었던 것이다.

글 _ 강민철 | 우리문화 기획팀장 | domingo@cultureplus.com

‘우리문화’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고는 우편이나 팩스,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자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편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주십시오)

발행처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편집실 :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24-3

제복빌딩 3층 컬처플러스

전 화 : (02)2264-9028

팩 스 : (02)2264-9021

E-mail : cultureplus@hanmail.net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합니다.